遣聞録 一
共三

져한국편지일

셰죵들의 ᄒᆞᆯ 어린 종이 통이 ᄒᆞ 즁의 종들을
샹뎨ᄭᅴ오의씌셔 어니 종이 샹통ᄒᆞᆯ밀젹
을일ᄂᆞ뵈 샹뎨쳥ᄒᆞ니 셰죵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아
희여곰ᄒᆞ여금 감히 근쳥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을 내게 ᄒᆞᆫ
나나의 통을 여어 너ᄃᆞᆯ 말ᄉᆞᆷ의 안ᄂᆞ미라 이여
져어셔 이러ᄒᆞᆫ듯ᄒᆞ니 광졍ᄒᆞ면 가히 알니라ᄒᆞ
실이에 ᄯᅳᆯ니쳐 면니ᄒᆞ사 ᄆᆞᄃᆞᆫᄃᆡ 가자이 엇니
ᄒᆞ시니 나의 즉부 직뎨ᄒᆞᆫ 죵이 셰죵들의 벼
ᄉᆞᆯᄒᆞ시ᄯᅴ 이 말ᄉᆞᆷ을 ᄌᆞᄂᆞᆫᄉᆞ의 누텬ᄒᆞᄉᆞ그ᄅᆞᆯ 내어셔

드러ᄂᆞ도다
셩종대왕이 ᄒᆞ로 ᄉᆞᆼ춍ᄅᆞᆯ 통ᄒᆞ샤 일죽 왜진
죽리여ᄅᆞᆯᄂᆞᆫ 때ᄌᆞ시니 ᄉᆞᆼ춍이 연ᄒᆞ야 ᄀᆞ졍ᄒᆞ
야 날오ᄃᆡ 감여ᄅᆞᆯ 보ᄇᆡ라 ᄒᆞᆯ ᄌᆞᆨ숨의 셰연ᄒᆞ야
이쳐 이시ᄃᆡ 내 일죽 비어보니 이쳐 시졀이 보ᄇᆡ
삼ᄂᆞᆫ 바의셔 말ᄇᆞᆯ 미치ᄂᆞᆺ ᄒᆞ니 ᄂᆞ라의 사뢰
ᄒᆞᆫ물 일ᄅᆞᆫ 간히 불어다
일ᄌᆞᆼ이 ᄃᆞᆼᄌᆞᆼ의 거실쳐 셔연을 남ᄒᆞ야 강랑이
죄ᄅᆞᆯ 여ᄅᆞᆫ 나리어니 ᄆᆞ득 옥셕이 ᄎᆞᆫ연ᄒᆞᆫ ᄒᆞ오시ᄂᆞᆫ
증랑ᄂᆞᆫ 셔ᄂᆞᆯ 오사ᄅᆡ 나리기ᄅᆞᆯ ᄀᆞᆺ치다 나셔 알ᄋᆞᆯ

드러가샤 잠깐ᄒᆞ야 다시나와 ᄀᆞᆯ오샤ᄃᆡ 별이스의
의드러 ᄇᆞᆨ기ᄅᆞᆯ 심히 즙히ᄒᆞ니 곳 업시ᄒᆞ롸
ᄒᆞ오시니 일홈이 보애ᄅᆞᆯ 통변이샤ᄃᆡ 셩혀ᄀᆞ
이 현연이 일홈ᄒᆞ샤 흉흉ᄒᆞ오시미 이러ᄐᆞᆺᄒᆞ오
신지라 내 려머셔 가형의셔 드ᄅᆞᆯ롸
션ᄒᆡ 긴얼ᄀᆞᆯ흉샹ᄒᆞ오샤 오ᄉᆡ 비랑이 엽블ᄉᆞ
랑의 주이 두자지ᄅᆞᆯ 얻니 ᄒᆞ오시어니 일흠ᄉᆞ 혀ᄉᆞ
ᄅᆞᆯ 서ᄀᆞ의 만ᄒᆞ실ᄉᆡ 녀랑이 오쳔ᄀᆞᆯᄅᆞ되니 거
두의 미ᄎᆡ 무ᄅᆞᆯ부만ᄅᆞᆯ블어ᄂᆞᆫ오시니 다만 블만
밥ᄒᆞᄂᆞᆯᄀᆞ라 랑어 다엿 ᄌᆞᄌᆞ라 ᄉᆞᆨ장라 괴ᄂᆞᆫ셤

거오미의셔 낭ᄃᆞ되다 ᄒᆞ오시니 이 ᄆᆞ옴이 은ᄂᆞᆫ히 흥
흥의 엽을 일ᄋᆞ시ᄆᆡ서다 하졍은 셜의 즁셔
의 져오시쳑 쟉되어다
셜ᄆᆞᆺ즐의 ᄒᆞᆫ다ᄋᆞᆺ이 ᄎᆞᆨᄎᆞᆨ ᄒᆞ야 ᄃᆞ향의 ᄃᆞ다 갈
시 열ᄋᆞᆸ이 별로 릭쳡ᄒᆞ되 말ᄉᆞᆷ되 네 상원이 ᄒᆞᆯ
ᄂᆞ 법ᄇᆞᆯ 직ᄒᆞᆫ되어 ᄌᆞ시ᄂᆞᆫ 방의 호ᄇᆞᆯ어ᄋᆞ미 엽ᄉᆞ니
녀ᄃᆞᆺ이 한ᄂᆞᆫᄒᆞ야 계ᄅᆞᄒᆞ야 ᄇᆡ해 ᄒᆞᄂᆞᆫ지ᄒᆞ야
ᄃᆞ라와 상의 ᄉᆞᆯ와 ᄀᆞᆯ오되 열ᄋᆞᆸ즁의 아ᄃᆞᆯ 원
이 싱을 릭쳡ᄒᆞ기ᄅᆞᆯ ᄌᆞ시되ᄅᆞᆯ ᄒᆞ오되 ᄒᆞᆯ노네
상원이 싱ᄋᆞᆯ ᄇᆡ 지ᄒᆞᆼ를 와ᄌᆞ이 되시다ᄒᆞ야 더

만녁뎡유의 당쟝이 두번 나올ᄉᆡ 다 ᄒᆞᆫ졍의니
ᄅᆞ니 샹이 명ᄒᆞ샤 다 노화 ᄉᆞ래옥의 식기실의 츅
이ᄒᆞᆫ다 ᄒᆞ오시니 낭의 홍자 회현방 집의 머므ᄅᆞ
니이시ᄆᆡ 거ᄌᆞᆫ 군ᄉᆞᆯ이 겨집의 노화 드러ᄂᆞᆫ지
라 군ᄉᆞᆼ의 ᄒᆞᆯᄉᆡ ᄯᅮ 활을 ᄲᆡ 일을 ᄉᆞᆯ어니 일을
은 ᄉᆞᄅᆞᆯ ᄃᆞᆺ 잡ᄋᆞ며 대쟝이 의치셔 영ᄒᆞ야 ᄃᆞ옥
믈 금ᄒᆞᆫ다 ᄒᆞ니 군ᄉᆞ이 감히 녕쳔의 잡ᄋᆞᆫ다 ᄯᆞᆯ을
못ᄒᆞ야 즉시 쇼를 ᄂᆞᆯ 다ᄉᆞᄂᆞ니 군령이 엄ᄒᆞ미
이러ᄐᆞᆺᄒᆞ더라
임진난의 셩ᄒᆡ 기별ᄒᆞ시믈이 총호의 이ᄅᆞ니

ᄇᆡᆨ셩이어즈러이 대ᄉᆞᄅᆞᆯ마자 ᄒᆞᆨ동ᄒᆞᆨ ᄒᆞ며
ᄒᆞᆨ흔믈ᄅᆞᆯ ᄒᆞᄂᆞ되 기롱ᄒᆞᆨ쟝ᄒᆞᄅᆞᆯ ᄒᆞ시ᄂᆞᆫ재
놉히뫼여 ᄀᆞᆯᄋᆞ되 ᄌᆞᆨ샹이 미ᄉᆞᆫ 셩ᄉᆞᆨ지아니ᄒᆞᆫ
실 ᄋᆞᆯᄋᆞ지 ᄒᆞᆫᄒᆞᆼ의 부옥ᄒᆞ기를 일홈ᄒᆞᆯ샹ᄋᆞᆫ아감ᄒᆞᆼ샹
이 통의 ᄒᆞ기를 웃듬을삼ᄋᆞ시더니 오ᄂᆞᆯ날이에
니ᄅᆞ시나 어지 ᄒᆞᆼ샹을 ᄒᆞ여곰 도ᄅᆞᆨ을 ᄀᆞᄅᆞ치
지못ᄒᆞ시ᄂᆞ니잇고 ᄒᆞ믈 샹을 향ᄒᆞ야 도ᄅᆞᆯ ᄀᆞᄅᆞ
질재 이시되 시위 ᄀᆞᄅᆞᆯ이라 약ᄒᆞ야 ᄒᆞᆼ히 ᄒᆞᆫ치못
ᄒᆞᄂᆞ니 ᄀᆞ셕의 ᄋᆞᆨ형샹ᄒᆞᆫ ᄒᆞᆼᄒᆞᆼᄒᆞ여 ᄃᆞ던재 날ᄂᆞ여 나
ᄒᆞ어라 셕목의 부리ᄋᆞ시 여ᄀᆞᆼ을 어지 ᄒᆞᆼ샹의게 뎐

혹ᄒᆞ시되오 ᄯᆞᄂᆞᆫ 즁ᄉᆡᆼ이 일시의션원ᄒᆞ올ᄉᆞᆯ 가히
알ᄂᆞ니어다
즁ᄉᆡᆼ의 경ᄉᆞ즉 용ᄉᆞᆫ 샹과 ᄀᆞᄒᆞ야 님재 되보록
ᄒᆞ야 말ᄉᆞᆷ 드ᄅᆞᄂᆞᆫ 현해 여러 막히시어ᄇᆞ
나 원쳔의 갑ᄉᆞᆯ어어 구산을 사지이다 셜외 글
오샤의 ᄉᆞᆷ의 ᄂᆞᄅᆞ면 드ᄅᆞ나지 아니ᄒᆞᆯ 현해 막ᄋᆞ면 븨
지아니ᄒᆞᄂᆞ니 ᄯᅳᆺᄋᆞᆯ어이 녈ᄂᆞ니되오 사ᄅᆞᆷ의거쳬 용
ᄂᆞᆯᄒᆞ미 즉ᄒᆞᄂᆞ니다 ᄒᆞ오시ᄂᆞᆫ 일ᄒᆞ야 나녀ᄂᆞᆫ 부ᄅᆞᆯ
ᄂᆞ리와 ᄀᆞᆯᄋᆞ샤의 일ᄂᆞᆫ 븨 막ᄋᆞ미 갓ᄒᆞᄂᆞ니다 웅회 감
리 어ᄂᆞᄒᆞ지ᄋᆞᆫᄒᆞ여셔ᄂᆞ니 인회 지옥ᄒᆞ시ᄂᆞᆫ 옥ᄉᆞᆫ 리

ᄯᅳᆺ노사 허ᄒᆞ니라 세상의 ᄒᆞᆫ음의 은혜와 원슈ᄅᆞᆯ
뵈 살ᄋᆞᆷ을 화ᄒᆞ여 복ᄒᆞ라 ᄒᆞᄂᆞ재 다 명을 어지
ᄭᅮᆷᄒᆞ미라 셜ᄯᅩ 동녁을 당ᄒᆞ야 길ᄒᆞᆫ 상이란
재 일빈형을 ᄭᅳᆯ되 을쳔을 셔ᄒᆞ니 명ᄒᆞ니 살ᄋᆞᆷ이
막히 북쪽ᄒᆞ되 ᄒᆞᆯ훗람이 어욱 친닐ᄒᆞ니 ᄂᆞᆺ희
ᄌᆞ구쳥ᄋᆞ이 뭇ᄋᆞᆷ의 아최ᄒᆞ야 ᄌᆞᄂᆞᆫ종의 닐어ᄅᆞᆯ오되
너ᄉᆞᆨ의 ᄃᆞᆯ면 방ᄒᆞ시 ᄌᆞᆨ박ᄒᆞ리라 ᄌᆞᆯ람이 ᄌᆞ종을
ᄌᆞᆨ히 원망ᄒᆞ야 ᄉᆞᆼ상을 ᄒᆞ여ᄂᆞᆫ 동상을 제쇼
ᄅᆞᆯ ᄒᆞ라 ᄒᆞ니 셜ᄭᅬ ᄌᆞ종이 ᄃᆞᆨ 라일의 인빈ᄌᆞᆫ
의 해ᄒᆞ오미 되ᄅᆞᆯ가 ᄒᆞ야 ᄃᆞ리여 ᄌᆞ종의 ᄂᆞᆨ의ᄅᆞᆯ 뵈

왼둥의 빅셩을 ᄒᆞ니 이 일월왕ᄒᆞ 되신지라
일쳬 긔운 ᄒᆞ시ᄃᆡ 주ᄋᆞᆼ의 ᄉᆞ례 ᄒᆞᄂᆞᆫ 쳑을 뫼ᄀᆞ
되을 ᄎᆞᆼ쳑ᄒᆞ 보지 ᄒᆞ야 빅셩의 오히셔 ᄂᆞ지 시아
나ᄒᆞ니 ᄌᆞ연ᄒᆞᆯ ᄌᆞᆼᄒᆞ ᄒᆞ면 다 ᄌᆞ로ᄒᆞᆫ의 동상ᄒᆞᆯ
란 연ᄒᆞᆯ셔 나ᄒᆞ지라 화복의 온을 다연ᄌᆞ히 인
력ᄋᆞᆯ ᄒᆞ라 셰상의 복을 ᄒᆞᄋᆞ며 ᄃᆞᆼ을 화ᄒᆞᆯ
러ᄒᆞᄂᆞᆫ재 이를 보면 가히 뫼 일ᄋᆞ러라 하ᄂᆞᆯ의 ᄋᆞᆺ
ᄅᆞ 상ᄒᆞᆯ의 회ᄋᆞᆯ 옹납지 ᄃᆞᆼ을ᄒᆞᆯ 가히 알ᄂᆞᆫ글라
ᄒᆞᆫ기ᄂᆞ 쳐생이 날ᄂᆞ셔 이되니ᄂᆞ 허라
맏여인 일의 셩의 계비를 ᄃᆞ리시며 ᄃᆡ례ᄅᆞᆯ

힝ᄒᆞ시ᄂᆞᆫ 날의 블ᄋᆞᆼᄒᆞᆷ이 만히 블평ᄒᆞᆫ 빗
치이시되 일ᄇᆡᆨ이 ᄉᆞ셕이 흘ᄂᆞ라 연ᄒᆞ야 즁ᄂᆞᆯ을
밧드러 나올셰의 좌우의 승뵹ᄒᆞ야 별노 기ᄇᆞᆫ일
이 이신 곳치 ᄒᆞ니 그날 셰샹의 무ᄅᆞᆫ ᄒᆞᄀᆡᆼ이라 글
오되 길빗이 반ᄃᆞ시 ᄒᆞᆫ 복을 누릴 노라 ᄒᆞ더라
셩후이 어셔 싀셰 뎨ᄌᆞ 극수 부인의 드ᄅᆞ니 부
인은 내 증조 ᄀᆞ의 ᄯᆞᆯ이다 셩후ᄂᆞᆫ 왕셰ᄌᆞ 반
셩부원군 박승 이실 셰ᄂᆞᆫ 다 욕동ᄒᆞ야 샹쳡
ᄒᆞᄂᆞᆫ 일이 업더니 및 혈ᄋᆞᆼ이 극귀ᄒᆞ의 졔왕
쇠라 당셩ᄒᆞ여 ᄂᆞᆺ지라 왕셰ᄌᆞ 극ᄒᆞᆯ 길ᄒᆞ이셔

변화ᄆᆞᆨᄒᆞ야 ᄌᆞ손을 셔서는 국치도화ᄆᆞᆨᄒᆞ야
쳔ᄒᆞ야 텬오의 왕실을 감히 도치못ᄒᆞᆯ 먹니거
러가 비로소 봉ᄒᆞᆫ들 갈세시의 발ᄒᆞ시 국과
각ᄒᆞᆷ의 대문 밧긔 봉ᄒᆞ더니 왕실의 국을
즉경ᄒᆞ미 이러듯ᄒᆞ는 국부인이 왕실을 ᄯᅡ자
불족창을 졍비ᄒᆞ야 리쳡ᄒᆞ니 국ᄌᆞᆨ졉의셔
왕실을 네쇠ᄒᆞ미 이러듯ᄒᆞ지라 내 외손 남은
은 연ᄒᆞᆼ의 성텰이라 진히 보면 연ᄒᆞ더라
셔ᄒᆞᆷ의 너랑니봉령이 상히각ᄒᆞ이의셔 텰연
을박ᄒᆞᆯ의 어텰의 텰법을 ᄆᆞᆨ히 연ᄒᆞᆯ와ᄒᆞ여니

니ᄃᆞᆯ 좀셩이 이ᄯᅵ의 ᄉᆞ상이 되여 봉형을
너 ᄭᅵ지쳐 ᄒᆞ오되 네 너시ᄒᆞ셔 어ᄃᆡᆯ ᄒᆞᄂᆞᆸ ᄒᆞ니 장
졋 부ᄉᆞ일을 ᄒᆞ오ᄉᆞ와 ᄒᆞ오ᄂᆞᆯ ᄒᆞ되지 아니면 ᄯᅡ랑이
충쳔구이 이시되다 봉형이 크게 ᄂᆞ려 ᄒᆞᆨ셰ᄅᆞᆯ ᄯᅴ변
ᄒᆞ니 션녀의 ᄃᆞᄅᆞᆯ 실기셔 ᄒᆞ오시니 이ᄆᆞᆯ을 셔빈의
게 ᄃᆞᄅᆞᆯ 리 ᄌᆞ세치 아니ᄒᆞ니 일홈ᄒᆞ의 지은 외ᄅᆞᆯ 챵
야화산 칙ᄅᆞᆯ 보니 ᄯᅩᄒᆞᆫ 이ᄆᆞᆯ이 이ᄅᆞᆯ지라 일홈은
션녀왕쳔니 ᄀᆞ말이 가히 미ᄉᆞᆸ부러다
션녀ᄃᆞᆯ의 상방을 셔 ᄃᆞᆯ녀ᄅᆞᆯ 풍ᄃᆞ구의 부여ᄒᆞ야
샹ᄂᆞ이 어ᄂᆞᆼ을 별ᄒᆞ라 ᄃᆞ리니 샹이 ᄲᆞ시ᄅᆞᆯ 현ᄉᆞᄅᆞᆯ 보

놋잔 찰ᄒᆞᆫ그ᄅᆞᆺᄲᅢ앗다 ᄒᆞ니 대새 당쟝이 억두롱의
가온 약ᄒᆞᆫ 의신이 쾌박ᄒᆞ리 부도라 ᄯᅡᆯ쳘
누ᄇᆡ 힘ᄇᆞᆫ ᄃᆞᄅᆞᆯ 빅셩이 이긔지 못ᄒᆞ야 이에 나ᄅᆞᆯ
려ᄉᆞᄅᆞᆯ 슈혀아ᄃᆞᄉᆞ시다 슐월 ᄉᆞ이의 논의나다
일을 능히 ᄉᆞᆯ피기를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셩문ᄂᆞᆯ 극ᄒᆞ 연ᄒᆞᆼ 부월을 길흘 졔ᄉᆞᄂᆞᆫ 굿내 양
가외소 난ᄒᆞᆼ의 ᄒᆞᆯᄒᆞ이라 극ᄒᆞᆨ 누비신상회
널오릐 영챵ᄃᆡᄉᆞ이 나며 살ᄅᆞᆫ이서 ᄒᆞᆯ히 셰치아
니러브ᄅᆞ리 ᄒᆞᆯᄂᆞ 연ᄒᆞᆼ의 아ᄃᆞᆯ 청ᄒᆞ치 못ᄒᆞ니 너의
베ᄅᆞᆯ 얻ᄋᆞ시ᄂᆞᆫ 신ᄒᆞᆯ 탁ᄒᆞ시ᄅᆞᆯ 굿치지 아니ᄒᆞᄂᆞ니

공주 영창이 의뢰ᄒᆞ올 기ᄃᆞ리어 의메ᄅᆞᆯ ᄒᆞ옵니 대
개 구화ᄒᆞ이 되올ᄉᆞᆯ 미리 혜아려ᄉᆞ시다 군중이 이ᄅᆞᆯ
니르시되 부이 메여 ᄉᆞ회ᄂᆞᆯ 일우지 못ᄒᆞ여다
설워 장ᄎᆞᆺ 쇄ᄌᆞ를 ᄀᆞ르치실ᄉᆡ 시험ᄒᆞ야 제왕ᄌᆞ
도셔 부셔를 오샤러 찰ᄒᆞ옹의 부어시 옷ᄂᆞ니러ᄂᆞᆫ
보랑희 ᄃᆞᆫᄒᆞ야 ᄀᆞ올러 ᄉᆞᆷ이니이다 상이 여ᄅᆞ
ᄀᆞᆯᄋᆞ 부ᄅᆞ시니 랑희를 오러 ᄇᆡᆨ미를 도화ᄒᆞ미 ᄉᆞᆷ
이아니면 뎌지못ᄒᆞᄂᆞ이다 상이 셕무ᄅᆞᆯ 샤러 버히
ᄂᆞᆫ 부ᄅᆞᄒᆞ올 일이 부ᄉᆡ을 랑희를 오러 ᄃᆞᄂᆞ어미일
ᄌᆞ죠ᄋᆞᆼ ᄀᆞ고 ᄀᆞ를 셜워ᄒᆞᄂᆞ이다 상이 그러타ᄒᆞᆸ을

그득이어시사 당회대외에 올ᄒᆞ미 젹어 이말을
힘닙다 ᄒᆞ여라
약ᄒᆞᆫ 착대ᄅᆞᆯ 가지시ᄂᆞᆫ 한미ᄒᆞᆫᄒᆡ 셩이 ᄎᆞᆷᄒᆞᆫᄒᆞ야
살ᄋᆞᆯ을 어ᄇᆞ러 결ᄋᆞ지 아니ᄒᆞ여니 ᄉᆞᆯ이어셔 궁
동의ᄃᆞ어 동ᄌᆞᆼ ᄒᆞᆫ궁이 되여시니 이 창빈이라
일ᄂᆞ부어 더욱 겸ᄂᆞᆫᄒᆞ야 일ᄌᆞ ᄎᆞ의 ᄇᆞᆫ의와 ᄊᆞ지
러도 일ᄌᆞ ᄒᆞ야 다ᄆᆞᆺ ᄎᆞᆷ사ᄒᆞᆯ 셩ᄌᆞᆼ이라 일ᄌᆞᆨ 궁ᄇᆡᆯ은
보ᄂᆡ엔 ᄒᆞ딸을 너지 아니ᄒᆞ여니 미시 빈이 왕손을 나
흐시며 드되여 두ᄆᆞᆫ블ᄎᆞᆯ르 ᄒᆞ야 살ᄋᆞᆫ이 ᄒᆞᆨ 왕손의
외조ᄅᆞᆯ 일ᄋᆞᄅᆞᆯ 가 ᄃᆞ여 ᄒᆞ여라 창빈 ᄎᆞᆷᄌᆞ 어ᄃᆞᆼ대

ᄒᆞ이 션혜대왕을 나하 대통을 니으시니 앙홍의
지외 덕욕 ᄌᆞ히 ᄒᆞ려 쳔ᄒᆞ여 ᄆᆞ음을 변치 아니ᄒᆞ
야 븟의 변ᄒᆞ와 비랑을 닙지 아니ᄒᆞᄂᆞᆫ 늦게야 ᄂᆞ병
을 ᄐᆡ 살명ᄒᆞ니 션의 ᄆᆞ음을 ᄐᆡ 영화ᄅᆞ져
ᄒᆞ샤 상방의셔 드리ᄂᆞᆫ바 ᄒᆞᄂᆞᆫ 글 ᄌᆞᄌᆞ 져ᄒᆞ시리 볼
ᄉᆞᆼ을 어ᄂᆡ 올ᄒᆞᆫ가 ᄒᆞ셔 살ᄒᆞᆷ을 시험ᄒᆞ야 ᄀᆞᆯ오ᄃᆡ
ᄌᆞ상이 봉앙을 ᄒᆞᆫ글 치ᄋᆞ시니 반ᄃᆞ시 ᄒᆞᆼ을 ᄌᆞ
실치 ᄋᆞᆫ 임의 ᄌᆞ시면 ᄒᆞᆼ이 감히 ᄋᆞᆫ니 닙지 ᄆᆞᆺᄒᆞ올 노
라 앙홍이 ᄀᆞᆯ오ᄃᆡ 내 볼 ᄃᆡ 쳔이 ᄒᆞ이라 ᄒᆞᆫ글 닙으
면 ᄌᆞᆼ을 ᄀᆞ리오 상명을 어ᄃᆞᆯᄒᆞ면 ᄉᆞᆼᄒᆞᆷᄒᆞᆫ을 ᄀᆞ리

외 가ᄉᆞᆯ 쇽ᄒᆞᆯ 외ᄒᆞᆼ ᄒᆞ신 ᄎᆞ셰ᄅᆞᆯ 어ᄃᆞ시오 ᄉᆞ은

이아니더니 ᄒᆞᄒᆞᆼᄃᆞ의 니ᄅᆞ러 우의 쳥ᄋᆞᆯ ᄌᆞᄒᆞᆼ

ᄒᆞ니라

셩외 일ᄉᆞᆨ 현쟝ᄋᆞᆯ 어ᄇᆞ러 한쟝의 셜옥 ᄒᆞ실ᄉᆡ

현쟝이 ᄂᆞᆯ오ᄅᆞ되 어ᄂᆡ 즁ᄒᆞᆼ이 이시니 ᄌᆞᄉᆞᄒᆞᆼ의 잡

ᄂᆞ니 어시니 쳥컨ᄃᆡ 보ᄅᆞ쇼셔 ᄉᆡᆼ이 ᄂᆞᆯ오ᄉᆡᄅᆞᄂᆡ 봉이

해ᄅᆞᆯ ᄎᆡ지 아닐지니 엇지 받ᄃᆞ시 잡보ᄃᆡ오 현쟝

이 욕을 ᄀᆞ치니 ᄃᆡ재 ᄂᆞᆼᄉᆞᆨ 산ᄅᆞᆯ이 활ᄉᆞᆯ ᄒᆞᄂᆞ니 만

ᄒᆞᆼ으ᄅᆞᆯ ᄉᆞᆨ이ᄂᆞᆯ 념을가 ᄂᆞ여 ᄒᆞ시미오 ᄉᆡᆨ 친지 봉

을 잡바ᄋᆞᆯ 죄지 ᄒᆞ오미 어려올가 ᄒᆞ시미러라 쇠의

울셔 나오시다 ᄒᆞ오라ᄒᆞ온재 어당ᄒᆞ시ᄂᆞᆯ 셩
각ᄒᆞ야 일노의 사ᄅᆞᆷ 내집의 우셔 쟝ᄉᆡ이셔ᄀᆞ 쟝
궁의 조해 ᄒᆞᆫ번 보오쳐ᄒᆞ올시되 내집을 서ᄅᆞ쳐
ᄯᆞ로리다 나상이 허락ᄒᆞ올 날ᄅᆞᆯ의 약ᄒᆞᄂᆞᆫ 보려엿
더니 그날이 다ᄃᆞᄅᆞ매 나상이 그집의 상ᄂᆡ 그쟝ᄉᆡ ᄯᆞ
ᄅᆞᆫ 다ᄅᆞ되 갓ᄃᆞ지다 그신ᄂᆞᆫ이 실시ᄂᆞᆯ 죄ᄅᆞᆯ 어ᄃᆞᆯ
가ᄃᆞ셔 드러사 그엿해 ᄃᆞ셔 널오되 ᄯᆞᆯ일 내 나상의게
ᄃᆞ뢰 ᄒᆞ면 ᄌᆞᆼ신ᄃᆞ록 배ᄅᆞᆯ ᄆᆞᆺᄒᆞ리니 그뢰 ᄌᆞ히
쟝ᄉᆡ ᄀᆞᄅᆞ되 실ᄒᆞ야 시쳔ᄒᆞᆯ지다 일ᄅᆞ이 ᄒᆞᄋᆞ의이
시니 그뢰와 나ᄇᆞᆨ과 ᄀᆡ다시 알니오 죄ᄉᆞᆫᄂᆞᆫ 쳔ᄒᆞ리

그쳬 홈디 못지 아니ᄒᆞ니 즁ᄉᆡᆼᄃᆞ리 드러셔 알아 드릐
리오 그쳬 ᄉᆞ릐 질어 ᄲᅴ 벙으리와 ᄃᆞ릐 니ᄉᆞᆼ이 ᄃᆞᆯ 즉
시ᄃᆞ라와 그ᄆᆞᆯ을 ᄉᆞᆯ고ᄃᆞ셔니ᄒᆞ리 일ᄋᆞ리 ᄒᆞ야
보리니라 내 그쳬 쥐의 ᄭᅴᆼ듣글 대ᄃᆡ의 드러ᄂᆞ니 랑
희 쥐ᄋᆞ 누ᄅᆞᆼ이 오히셔 이ᄅᆞ니가 ᄆᆞᆨ하 서ᄅᆞᆯ 어브려
녜 ᄆᆞᆯ ᄒᆞ릐 날을 어셔 ᄲᅡ르ᄂᆞ지 못ᄒᆞ리라 ᄒᆞ야
ᄆᆞᆯ을 ᄆᆞᆫ지고 일이 어브러라 ᄲᅥ셔 ᄒᆡ라 ᄀᆞᆯᄋᆞ릐 랑
희 신쉬 ᄒᆞ기 라ᄒᆞ야 ᄒᆞᆯ을 ᄉᆞ이의 ᄒᆞᆼᄋᆞᆯ 갈라히
ᄒᆞ기ᄂᆞᆯ 십ᄇᆞᆺ 일의 지ᄂᆞ지 아니커ᄂᆞᆯ 세상이 그릇ᄃᆞ로
신ᄋᆞᆯ 니ᄅᆞ니 그원ᄃᆞᆼ키 신ᄆᆞᄅᆞ라 ᄒᆞ니 ᄉᆞᆯᄂᆞᆫ다 ᄒᆞᆯ

로래ᄉᆞ졔왕이 부모의 ᄉᆞ의 ᄉᆡᆼ장ᄒᆞ야 상셩을
도리를 아지 못ᄒᆞ야 결혀 ᄒᆞᆫ졀이 업서 ᄇᆞ론ᄃᆡ
요졀ᄒᆞ니 ᄆᆞᆼᄌᆞ 재 이런 ᄆᆞᆯ노 ᄆᆞᆯ의 안치 어ᄂᆞᆫ줄
여지 아ᄂᆞ니오 랑회 이ᄂᆞᆫ줄 동ᄉᆞ의 ᄌᆡᆼ셩ᄒᆞᆫ 동명 련
강ᄒᆞ되 어ᄂᆞᆯ 줄 이어ᄒᆞᆯ 세ᄉᆞ를 ᄇᆡᆨ공ᄒᆞᄂᆞ의셔
쳐어지시기를 날마다 ᄉᆞ십ᄉᆞ를 ᄒᆞ여니 명연 상월
십이일의 니ᄅᆞ러 ᄀᆞᆺ치길 ᄀᆞ이 ᄃᆞᆯ날 일ᄌᆞ 박졍ᄒᆞ
시니 ᄒᆞᆨ키신이 강회의게 이ᄉᆞᆼ을 ᄒᆞ여 ᄂᆞᆯ의 아이ᄉᆞᆨ
ᄒᆞᆫᄉᆞᆯ ᄀᆞᆼ미ᄒᆞ되 ᄉᆞᆯᄅᆞᆫ이 능히 아지 못ᄒᆞ미 가내
ᄋᆞ시의 이 ᄆᆞᆯᄉᆞᆷ을 ᄌᆞᆼ이ᄂᆞᆫ의게 드러어니 ᄒᆞᆫ의 허ᄒᆞᆸ

뎨 젹의 셰 ᄃᆞᆯ니 ᄡᅮ올 이런ᄃᆞᆺ ᄒᆞ오지다 대새 젹의
룽씨 당희의 ᄒᆞ흉ᄒᆞᆫ 재이ᄅᆞᆯ 지다 그러 일ᄋᆞᆯ ᄌᆞ시
알외여다
당희 계츅의 일ᄂᆞᆨ 대비 뎡명ᄀᆞᆼ츄ᄅᆞᆯ 어브려 셔
궁의 쳐 ᄒᆞ시지 십년이라 현졔 계희 츅의 시비
ᄒᆞ나히 즙희 ᄉᆞ희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상위ᄅᆞᆯ 아므날의 이
블이 쟝ᄎᆞᆺ 엳ᄂᆞᆯ 거시니 다시 뎐일ᄋᆞᆯ ᄇᆞᆯ노라 ᄒᆞ
둉이라 ᄲᅡ희 ᄒᆞ되 미ᄎᆞ라 ᄒᆞ더니 ᄌᆞ날의 니ᄅᆞ러 이희
대비ᄅᆞᆯ 받드러 북위 ᄒᆞ시ᄂᆞᆫ ᄀᆞᆼ치 셰로 ᄒᆞᆼ ᄀᆞᆼ의
게 드라가 ᄌᆞ츅이 셜을 ᄒᆞ올 북녁이 므롯 ᄀᆞᆼ츅의

올흔되니 듕츄의 어눌 말솜의 일솟 주랑의 드를
말ᄂᆞ뵈 날ᄂᆞ셔 니ᄅᆞ러라
계흥의 박쳥ᄂᆞᆯ의 녕상 박ᄂᆞᆼ즁이 젹은ᄃᆞᆯ흥의의
뵈 ᄀᆞᆯ오되 남ᄂᆞᆫ ᄀᆞᆯ션시되 무상ᄒᆞ야 온ᄀᆞᆯ노ᄂᆞᆫ ᄀᆞᆯ
일외니 하면ᄂᆞᆫ굴 션왕ᄋᆞᆯ디하의 뵈오되오깁
흥의 션져 백 현되지신의세 ᄉᆡᆼ제 흥되라 흘
장흥ᄉᆞ 뭇의 드를여 흥라가 다연치못ᄒᆞ야 견쳔
삼마소의 니흘러 증의 방의 드러 ᄂᆞᆸ블 노흘 무를
뫼야 ᄀᆞ옷ᄉᆞᆯ 쟝ᄃᆞᆼ ᄀᆞᆯ되여 ᄀᆞ흥 ᄀᆞᆯ흥여ᄂᆞᆫ 다되
라흥니 흥이 ᄡᆞ려 ᄀᆞᆯ오되 흥이 어지ᄂᆞᆫ히 흔ᄀᆞᆯ

항거ᄒᆞᆯ 죽이되오 죽어도 감히 못ᄒᆞ리로소이다 박
승이 ᄀᆞᆯ오ᄃᆡ 내 오ᄂᆞᆯ 죽지 아니면 맛ᄎᆞᆷ이 되ᄅᆞᆯ지
시니 네 죽이면 ᄃᆞᄅᆞᆼ이 되ᄅᆞᆫ 아니 죽이면 블ᄅᆞᆼ이
리ᄂᆞ니라 ᄂᆞ로히 기우ᄒᆞ니 ᄅᆞᆼ이 이에 ᄃᆞᄅᆞᆯ 호
국ᄒᆞ시ᄂᆞᆯ 국치지 아니ᄒᆞ여다 이날의 하ᄂᆞᆯ 경회
감ᄉᆞ ᄃᆞᄉᆞᆼ이 ᄯᆞᆯ을 그졀의셔 ᄌᆞ살ᄒᆞ니 졀ᄌᆞᆼ이
무ᄅᆞ흘재 일ᄂᆞᆫ 내 집 어ᄅᆞᆫ의게 ᄂᆞ흘어다 병을
ᄒᆞᆫ 응셔의 김ᄉᆞᆫ이 ᄯᆞᆯ재 계회연이 ᄯᆞᆯ을 무ᄅᆞᄒᆞ
야 날ᄂᆞ셔 날어 ᄀᆞᆯ오ᄃᆡ 강회 ᄂᆞ로ᄒᆞ시 날ᄂᆞ 심
ᄒᆞ야 하ᄂᆞᆯ이 ᄂᆞᄒᆞ오시ᄂᆞᆫ 빈ᄀᆡ 셩이 왼ᄭᅡᆼᄒᆞ야 부

오회 ᄉᆞ면을 량ᄯᅡᆼ을 ᄯᅡ아 지ᄂᆞᆫ ᄯᅢ를 ᄌᆞ세히 보
지붓ᄒᆞ세ᄒᆞᆯ 비 ᄃᆞᆯ을 ᄒᆞ주 비를 ᄀᆞᄒᆞᆫᄃᆞ ᄒᆞ니 ᄲᅮ신
니외ᄃᆡ ᄒᆞ형 별쟁이 되여어니 속회 각현ᄒᆞ니
외셔ᄒᆞᆷ을 여서 번지더ᄂᆞᆫ 잎의 다ᄅᆞᆯ씨 량을 엽시
ᄒᆞᆯᄂᆞᆫ 늬시 글을 졍ᄒᆞ니 량회 ᄲᅮᆯ리 이서시 어ᄃᆞ니히
보이에 졔최다 ᄒᆞᆯ러 량회 악연ᄒᆞ야 크게 ᄂᆞᆯ혀 글
오회 내어이 이에 너ᄒᆞᆯᄂᆞᆫ ᄌᆞ못 ᄲᅮᆼ을 결최ᄃᆞᆺᄒᆞ야
ᄒᆞ니 졔최 왼이 셜ᄃᆞᆨ의 영ᄒᆞᆨ ᄒᆞ라가 이ᄞᆞᆯ을 ᄂᆞᆺ
ᄂᆞᆫ녀가 쓱어 ᄅᆞᆯ오리 ᄒᆞᆼ신 너ᄃᆞᆯᄒᆞ신셔의 ᄒᆞᆯ일을
멀니 ᄒᆞᆯ 활란 ᄒᆞᆼ첩을 ᄒᆞ여ᄃᆞᆷ 졍ᄉᆞ의 ᄉᆞ예 최ᄃᆞᆺ

ᄒᆞ세 ᄒᆞᆫ번ᄃᆞᆯ을 어지이에 나흘리오 승리어영을 닥지
아니ᄒᆞ면 빈잔을리다 덕국이 ᄯᅡᆼᄯᅡᆼ을 두지못ᄒᆞᆫ
여서시니이가 량회 ᄒᆞᆫ들이 주흘이 승흘어눙히
말을ᄒᆞ지못ᄒᆞ여다니 원뢰 날다 흥부의 발찰
직ᄒᆞ야 실체 나흘어다
량회 제흘의 영창대ᄒᆞᆫ이 칼세 직을 공흉외
리ᄒᆞ야 잘ᄒᆞ지못ᄒᆞ나 부ᄒᆞᆼ을 심ᄉᆡᆼᄒᆞ 회쳐
내중로 각생부흥을봉혈 ᄒᆞᆫ들을 여흘ᄒᆞ되
츅생이 ᄯᅡ량이 태흥을 ᄯᅮᆯ벋ᄒᆞ희 동여얏치를
실라흘믜 먹여흘 오리 도적이이쳐 해 ᄒᆞ쳐

ᄒᆞ나 내 이시니 놀나지 말나 이리 ᄒᆞ시면 감히 션
왕의 하ᄂᆞᆯ의셔 신령ᄒᆞᆫ 외ᄅᆞᆯ ᄂᆞ리오시어ᄂᆞᆯ 이
에 도로혀 ᄃᆞ만 ᄒᆞ지 못ᄒᆞᆯ 일을 ᄒᆞ니 우리 나라
ᄒᆞᆯ 보젼치 못ᄒᆞᆯ노라 ᄒᆞ신이 일ᄉᆞᆨ 죽지 못ᄒᆞᆫ
여러 죽을 ᄒᆞ올노라 ᄒᆞᆯ 눈물이 옷ᄉᆞ매 젓더라
임ᄌᆞ의 ᄃᆡ인이 ᄂᆞᆯ오리 랑ᄒᆡ ᄒᆞ옹 충홍 잇시ᄂᆞᆯ
부예 ᄒᆞᆨ 붕졍의 쳡ᄇᆡ들이오 관셔 ᄎᆡ졍의 죽
해라 ᄌᆞ상부모ᄅᆞᆯ 임ᄌᆞ의 와ᄌᆞ의 길ᄂᆞ여 임ᄌᆞᆯ
어부터 ᄉᆞᄅᆞᄅᆞ시 외ᄀᆞᆯ ᄃᆞᆼ치 못ᄒᆞ여니 경ᄒᆞᆯ연
의ᄂᆞ희 십삼이라 그의 ᄉᆞ외 익연ᄒᆞ야 궁듕의

셰샹이 복녹이 빠이 업다니 즐어나 벌앙ᄒᆞ녹

ᄒᆞᆫ ᄌᆞᆯ기ᄅᆞᆯ 셩의 ᄭᅳᆺ녹 ᄉᆞ벽치ᄅᆞᆯ ᄭᅳ라오ᄅᆞᆯ ᄒᆞ리

발숑의셔나 ᄌᆞᆯ오리 리두라 잘될여 ᄒᆞᆯ을 부예 잘

예 ᄒᆞ을재 너뫼 셔천 시싱을 시싱ᄒᆞᆯ시 쇵오ᄅᆞᆯ ᄉᆞ외이

셔 ᄌᆞᆯ오리 발이 어지크ᄂᆞᆫ 거재 화낙ᄒᆞ야 다 빅

ᄒᆞ리 하ᄂᆞᆯ이 큰복을 누리오니 리싱이 ᄯᅥᄒᆞᆯ 줄

기ᄯᅳᆯ ᄃᆞᆸ을 라ᄒᆞᄂᆞᆫ어니 계회의 니ᄅᆞ러 량회외ᄅᆞᆯ

일오 졔되 ᄌᆞᆯ 위찬ᄒᆞᆯ ᄭᅳᆺ질연의 ᄌᆞ홍의 ᄉᆞ

ᄌᆞ ᄒᆞᆯ닙이 ᄆᆞ려ᄒᆞ라가 복법을 거ᄌᆞᆨ이 거의

멸ᄒᆞ니 리신의 오련 리ᄲᅧᆼ이 이에 말ᄂᆞ라

녯 녹빅농이란 살ᄅᆞᆷ이 집이 가난ᄒᆞ야 쟝ᄉᆞᆺ슴일
지방을 ᄒᆞ셔ᄂᆞᆯ시 리실이 뵈며 ᄉᆞ바랑을 ᄂᆞᄂᆞ니
니 빅농이 학농ᄒᆞ야 ᄀᆞᆯᄋᆞ되 빅농이 친실ᄂᆞᆫ 녕이 잇
ᄂᆞᆫ 어시라 ᄒᆞᆫ ᄃᆞ러여 굿치니 빅농의 셔ᄂᆞᆯᄅᆞᆫ다
녹시의 셔ᄂᆞᆨ치 못ᄒᆞᆷ이 강히 ᄒᆞᆫ 톄의 칭셰 되디ᄅᆞᆯ라
ᄀᆞ예 잡힌의 챵예 ᄒᆞ엿던 부여의 아ᄂᆞᆯ이 이제 대외
되야 낭히 ᄂᆞᆨ어 집의 이셔 일ᄌᆞᆨ 친히 ᄀᆞᄅᆞ랑ᄋᆞ르
러ᄒᆞ라 ᄒᆞ여라
계화 발쳥날의 랑화ᄂᆞᆫ 낙쳥을 신화ᄂᆞᆫᄅᆞᆯ 귈은
밧ᄋᆞ리 비여옹니 붕상시 하인 ᄒᆞᆼᄂᆞᆫ이 탁재 직화ᄂᆞᆫ

의ᄉᆞᆫ들셩ᄉᆞᆯ과 ᄒᆞᆫ찰ᄂᆞᆷ의 냥미갈을 발ᄂᆞᆫ차ᄅᆞᆯ노
리네 능히 날ᄅᆞᆯ 궁케ᄒᆞᆯ소냐 찰ᄂᆞᆷ이 니ᄯᅡ와 괴상
ᄒᆞ야 거의 킈ᄂᆞ되 감히 ᄒᆞᆯ말ᄅᆞᆯ 되지못ᄒᆞ더ᄅᆞᆯ ᄒᆞᆯ
ᄂᆞᆼ이 일ᄒᆞ야 ᄯᅩ 잘ᄂᆞᆫ쳐 ᄒᆞ라가 직힌 눈이 셔ᄭᅢ리여
ᄀᆞᆺ치나 대새 이ᄃᆞᆯ결의 ᄌᆞᆼ녀의 쳥ᄒᆞᆷ을 발로ᄒᆞᆷ
을쇠 쇠ᄒᆞᆯ 열ᄒᆞ리 허라 찰ᄂᆞᆷ이 미여 쇠힌 엽ᄒᆞ리여
갈ᄒᆞᆯ사 심ᄒᆞ야 주ᄅᆞᆯ의게 ᄭᅮᆯ을 구ᄒᆞᆯ되 ᄃᆞᄅᆞᆯ이
ᄀᆞᆯᄒᆞᆯ쇠 대비 셔ᄉᆞᆼ의셔사 거ᄌᆞᆯᄒᆞ시이 오ᄅᆞᆯ 올너
의셔 심ᄒᆞ시되 네 일ᄉᆞᆨ ᄒᆞᆯᄯᅢ 물을 낭ᄒᆞ지 아니ᄒᆞ여
ᄂᆞᆯ내 어지 너의 잘ᄒᆞᄂᆞᆫ 구ᄒᆞ리오 찰ᄂᆞᆷ이 감히 말

을 ᄭᅮᆷᄒᆞ니 홀연ᄒᆞᆫ 삼ᄂᆞᆫ 노ᄅᆞᆺ이 본ᄌᆡ이셔 니ᄅᆞ더라
ᄂᆞᆷ인이 니ᄅᆞ되 당회 중인을 ᄌᆞᄅᆞᆯ ᄌᆞᄌᆞ이 ᄒᆞ야 들
녀ᄇᆡ 직킈ᄒᆞᄂᆞᆫ재 오십여인이 ᄒᆞ되 밧ᄂᆞ시다 ᄒᆞᆯ시
ᄂᆞᆨ모ᄋᆞᆼ을 어ᄃᆞ셔 ᄒᆞ야 살ᄋᆞᆯ ᄯᅡ라 면ᄌᆞ ᄉᆞ십ᄃᆞᆯ라
면ᄂᆞᆨ오십 ᄂᆞᆯ을 ᄌᆞ니 ᄂᆡᄌᆞ셔 지랑치 못ᄒᆞᄂᆞ지라
벼ᄉᆞᆯ ᄒᆞᄂᆞᆫ 자의 ᄉᆞᄉᆞ 증상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뵈여ᄒᆞ야 쓰ᄂᆞᆫ
로 말ᄉᆞᆷ의 ᄉᆞᆯ 증상이 낫ᄂᆞᆫ더ᄒᆞᆫ 거ᄉᆞᆯ ᄒᆞᄂᆞᆫ재 ᄅᆞᆷ
남ᄂᆞᆫ 호미라 일ᄂᆞᆫ 말ᄉᆞᆷ이 ᄋᆞᆫᄂᆞᆫ다 ᄒᆞ더라 당회ᄌᆞ외ᄂᆞᆫ
련쾌 ᄋᆞᆫᄃᆞᆺ의 ᄒᆞᄌᆞᆼ을 번ᄒᆞᆯ니 ᄌᆞ어 ᄃᆞᄃᆞᆫ ᄒᆞ지ᄂᆞᆫ ᄀᆞᄒᆞ더
니 동연의 ᄉᆞᆷ을 ᄉᆞ니 ᄒᆞᆫᄂᆞᆫ 남을 ᄃᆡ랑이 ᄒᆞᆫᄂᆞᆯᄂᆞ셔

ᄂᆞ려와 닐오ᄃᆡ 왕이 ᄂᆞᆷ의 얼골을 즐기시믈 ᄇᆞᆯ히ᄒᆞ
여시니 ᄒᆞ여 얼골을 보젼치 못ᄒᆞ셔든 어지라ᄂᆞᄂᆞᆫ
기ᄅᆞᆯ ᄀᆞᆼ되오 강희 구ᄒᆞ 각ᄉᆞᆫᄒᆞᆯ 방ᄂᆞᆯ을 ᄉᆞᆯᄉᆞ의
게 구ᄒᆞ야 부작ᄒᆞ기의 니ᄅᆞ어라 그ᄃᆡ 궁인이 ᄂᆞᆯ을
을ᄂᆞᆫ 그ᄃᆡ 외ᄅᆞᆯ 오ᄅᆡ 우리 그ᄃᆡ 왕ᄉᆞᆯ을 나쳐ᄒᆞ야 그
부작을 하쳐 ᄒᆞ여니 이제 신ᄋᆞᆼ작ᄒᆞ니 우리 ᄆᆞᄂᆞᆫᄃᆡ
냥치 못ᄒᆞᄂᆞᆫ 하ᄂᆞᆯ이 우리ᄅᆞᆯ 복을 주시미라 ᄒᆞ여라
계희 ᄇᆞᆨ셩일의 강희 부ᄂᆞᆼ을 ᄎᆞᆺ 셕ᄋᆡᄂᆞᆫ 등
뎐ᄒᆞ시ᄂᆞᆫ 궁녀 ᄉᆞ십인을 ᄃᆞ려브러 ᄒᆞ구원의가 어ᄎᆞ
당ᄎᆞᆼ올 ᄎᆡ 숨어 업ᄃᆡ여ᄃᆞ가 ᄃᆞ병이 ᄲᆞ기글 드

어셤블을 ᄒᆞ얏지 못ᄒᆞ여 날의 누시ᄅᆞᆯ 오ᄅᆡ 내여ᄌᆞ시ᄂᆞᆫ어
살ᄭᅵᄅᆞᆯ 도모ᄒᆞ오리오 ᄒᆞᄋᆞᆸᄂᆞᆯ ᄒᆞ여금 ᄯᆞᆯᄅᆞᆯ 베혀
동렬이 예 겨시다 ᄒᆞ되 ᄒᆞ엿비 동달 귀ᄒᆞ여 감
히 나지 못ᄒᆞ여서 한시 보항이라 ᄒᆞ되 이셔 눈ᄯᆞᆯ
ᄒᆞ시ᄅᆞᆯ 경ᄒᆞ야 나 셜우회쳐ᄅᆞᆯ 오ᄅᆡ 동텬이 예 겨
시다 ᄒᆞ니 대쟝이 보야ᄒᆞᆯ ᄒᆞ샹의 거ᄃᆞᆫ앗치다가
즉시 니러셔며 슌ᄒᆞᆯᄂᆞ ᄒᆞ여금 져기 즈진ᄅᆞᆯ듯ᄒᆞ니라
ᄒᆞ되ᄅᆞᆯ 한시 쇽 ᄒᆞ시 뜻ᄅᆞᆯ ᄆᆞ어ᄅᆞᆯ 오ᄅᆡ 즉ᄡᆞᆼ이 읍
의ᄉᆞ라ᄒᆞᆯ ᄆᆞ일ᄒᆞ여 셔시니 새ᄅᆞᆯ 셔시니 되도 대쟝이 ᄉᆞᆯ
오ᄅᆡ 셩조대왕 ᄉᆞᆨ라ᄒᆞᆯ 감히 알ᄆᆞ라 니ᄅᆞ지ᄆᆞᆺ

ᄒᆞ여라 ᄒᆞᆫ시 신체 ᄯᅳᆺ을 누려 울을 외 오를이 거리
증상을 외ᄒᆞ미라 부귀를 외ᄒᆞ미라 대쟝이 글로
리 증새 거의 망케 되엿ᄂᆞᆫ 울을 우리ᄂᆞ리 부득이ᄒᆞ
야 새 님금을 밧드러 태평ᄒᆞ니 어지롬을 보리
극켜 ᄒᆞ미 되오 ᄒᆞᆫ시를 오래 인의 의론뫼 일홈을
ᄒᆞᆫ즉 쳔왕의 비를 주어 죽게 ᄒᆞ되오 대쟝이 말
을 ᄂᆞᆫ질 주시 인ᄌᆞ의 벌외ᄂᆞ 밥다 음식을 두어
이 ᄒᆞ니라 증의 ᄒᆞᆫ지를 어ᄌᆞ왕의 드러 연재 날
울외ᄒᆞ야 나로여라 량희 제ᄉᆞ이 실케 니엿쳥
시방이 ᄭᅮᆨ이 되여 음식쟝만ᄒᆞᆯ 사ᄅᆞᆷ을 시킨다

ᄒᆞ야 즘ᄉᆞᆨ을 ᄐᆞᆨ히 ᄒᆞ야 나오라 ᄒᆞ여시니 당히
견일ᄒᆞ라 다ᄉᆞᆺᄉᆞᆯ을 기ᄃᆡ 이발ᄒᆞ시 견일을 내셔 ᄎᆞᆨ은
ᄒᆞ재 ᄒᆞ라 늙은 즁인이 ᄃᆞ라ᄉᆞᆨ재 이셔 ᄒᆞ오되 엇니라
ᄒᆞ되 당히 ᄒᆞ오되 네 엇지 아ᄂᆞ라 즁인이 ᄒᆞ오되 야
야의 신ᄌᆞᄎᆞ쳑 ᄒᆞ시기를 이ᄅᆞ즁 ᄒᆞ즁의 회예 력ᄒᆞᆯ
ᄒᆞ니 이 왼이 ᄯᆞᆨ일 일ᄉᆞᆨ이 ᄌᆞᆨ셩을 ᄀᆞ혜 발ᄒᆞ재면
박ᄒᆞ시 장ᄒᆞᆺ ᄀᆞᄒᆞᆺ글 박ᄒᆡ ᄒᆞ야 견일 ᄀᆞ만ᄒᆞᆯ 비밀
ᄒᆞᆯ ᄌᆞᆼ쳑ᄒᆞᆯ 싱ᄌᆞᆨ ᄒᆞᆯᄂᆡ시니 어ᄌᆞ지 간ᄃᆞ히 졍쳥 일ᄉᆞ외
기ᄅᆞᆯ 이러ᄒᆞ시 ᄒᆞ되오 당히 ᄒᆞ의 시방이ᄒᆞᆯ 알되는
블ᄒᆞᆯᄒᆞᆼᄒᆞᄂᆞᆯ 머리를 숙여 ᄌᆞ즁인 부기를 부ᄒᆞ여ᄒᆞ

더라 랑회 쥬옹의 ᄌᆞ인ᄉᆞ라가셔재 도라와 ᄃᆞᆼ추
ᄅᆞ셔 니ᄅᆞᄃᆡ 대재 시방이 경사ᄒᆞ신 연형ᄌᆞ의 아ᄃᆞᆯ
이오 ᄉᆞᆼ공신의 ᄎᆞᆫ예ᄒᆞ야 연셩ᄒᆞᆫ 공봉ᄒᆞ여시니
랑회 도ᄌᆞ의 일명도 넘치ᄂᆞᆫ ᄒᆞ더니 ᄃᆞ라 랑회 졔치
이실제 중비ᄉᆞ라가니 셩이 사ᄋᆞ납ᄇᆞᆫ 흘륙ᄒᆞ재
이셔 공봉ᄒᆞ기ᄅᆞᆯ 더옥 불ᄉᆞᆼ이 ᄒᆞ오ᄃᆡ 랑회 ᄡᅳ지
쥬회 기인이여 셩ᄒᆞ야 ᄀᆞ오ᄃᆡ 아애 일ᄌᆞᆨ 지ᄌᆞ의
거ᄒᆞ여 실ᄒᆞ쳑 ᄐᆞᆯ방 ᄇᆡᆨ셩이 ᄌᆞ따라 공봉ᄒᆞ기ᄅᆞᆯ ᄒᆞᄅᆞ쇠
ᄉᆞᆯ나오되ᄅᆞᆯ 무어시 부ᄌᆞᆨᄒᆞ야 음식을 엄쇠 엽ᄉᆞᆯ
ᄂᆞᆨ의 ᄉᆞᄉᆞ 침쇠 ᄐᆞᆯ셔 잠쇠 찬란 ᄯᆞᆯ이 니ᄅᆞ게 ᄒᆞᆫ

계를 중홍의 밧 근ᄒᆞ야시니 ᄒᆞᆫ후 외를 이엉ᄒᆞᆯ가 념
녀ᄒᆞ야 통홍의 회죄ᄒᆞ야 북외ᄒᆞ기를 도모ᄒᆞ려
ᄒᆞ미러라 내 이 ᄯᆞᆯᄋᆞᆯ 빅 ᄒᆞᆫ이 은ᄃᆞ자 옹이 숑ᄃᆞ려 ᄒᆞᆯ는
ᄒᆞ니 이 숭이 나를 오뢰 진실노 이 일이 이시니 폐ᄒᆞ의
글 부졀치 못ᄒᆞᆯ 줄이 이웅이 쇽부졀치 못ᄒᆞᆯ 줄을
못ᄒᆞ니 엇지 나라ᄒᆞᆯ 일치 아니ᄒᆞ리오 ᄯᆞᆯ을 니ᄒᆞ여
회쥐ᄒᆞ여라 내 즁ᄒᆞ ᄉᆞᄒᆞᆨ부ᄒᆞᆫ이 별새 낭락ᄒᆞᆫ 밧
기 이시니 ᄀᆞᆺ 남장ᄒᆞᆫ 엽이라 부ᄂᆞᆫ이 랑회ᄒᆞᆫ의 셔
울 이ᄋᆞᆺ기를 슬회어서 셔로 ᄒᆞᆨ 가져시되 숑담을
ᄯᆞᆨ희 심ᄒᆞ니 번양 숫치 ᄃᆡ의 비ᄂᆞ미 근ᄒᆞᆨ ᄃᆞ려라

부즁의 여ᄎᆞ 츅슈에 희봉이 별ᄉᆞᆯ을 동량 밧긔
두니 원님이 셔ᄅᆞᆯ 연ᄒᆞ여 ᄀᆞ더니 일ᄂᆞ의 츅쟈의 층
이 ᄃᆞᆫᄋᆞᆯ 엇ᄂᆞ여 두어와 쏘ᄂᆞᆯ ᄃᆞ려 ᄒᆞ야 다 옴겨
츅자 등쌍의 시ᄂᆞ 쳐ᄒᆞ션을 ᄂᆞ흡ᄒᆞ나 ᄃᆞ리와 ᄀᆞᆯ
리 부즁이 ᄂᆞᆯ오리 희봉이 어지 ᄀᆞ릉ᄒᆞᆯ 시여 내
등쌍ᄂᆞᆯᄀᆞ과 옴기다 ᄒᆞ여시되 오ᄂᆞᆯ 다만 ᄒᆞ영일
이원의 극ᄒᆞ야 슈뵉이 나ᄂᆞᆯ ᄀᆞᆯ ᄂᆞ뵈의 ᄒᆞ셰 각
별이 이러틋 ᄒᆞ나 즘ᄂᆞ리 식여 ᄒᆞ미 이셔 ᄉᆞᆯ 말
미 안ᄂᆞ지 못ᄒᆞᄂᆞᆫ 듯ᄒᆞ나 ᄒᆞᆫ이 ᄒᆞ면 ᄉᆞᆯ을 ᄀᆞ릐ᄂᆞ니 시니
어지 밧드시 즘ᄒᆞ되 오 가쳐 ᄉᆞᄂᆞ리ᄅᆞᆯ ᄂᆞ다 오히지 아

난ᄒᆞ야 다연ᄌᆞ집이 대ᄒᆞᄂᆞ라
ᄒᆞᆫ 션박승 중이 녕샹을 ᄆᆡ 광ᄒᆞ여ᄂᆞᆫ 셩왕
실의 인연ᄒᆞ야 부회 일시의 죽ᄒᆞ니 ᄌᆞ뎝아ᄃᆞᆯ이
ᄒᆞᆼ샹 굴 ᄎᆞ락ᄉᆞ의 ᄂᆞᆯ여 의복과 ᄂᆞ매 앙ᄌᆞ의 빗
나어라 ᄒᆞ연이 뫼ᄉᆞ의 깃드려 시ᄂᆞᆯ 보ᄂᆞᆫ 을ᄉᆞ발젼
젼복을 ᄀᆞᆯ희 ᄒᆞᆼ ᄒᆞ야 ᄌᆞ긧드리 ᄃᆞᆯ 어져 빅 ᄆᆞᆼ을 사
ᄅᆞᆷ의 ᄌᆞᆫ도아 ᄌᆞᆸ도셔 동을 보니 으ᄅᆞᆫ 젼복은 옥
리ᄂᆞ라 회 ᄀᆞ쟝 보편 엿 거시니 ᄌᆞᆼ옥와 함ᄭᅴ 어허
보기ᄅᆞᆯ 오히려 청ᄒᆞ지 못ᄒᆞ여ᄂᆞᆫ 되ᄂᆞᆫ 보기ᄅᆞᆯ 진약
기와 ᄀᆞᆺ치 ᄒᆞ야 앗기ᄃᆡ 업ᄉᆞ니 곡막ᄒᆞᆯ 사치ᄒᆞ

미이셔늣ᄒᆞ니 어ᄶᅵ시셔ᄂᆞᆫ망치아니ᄒᆞ리오 이
두일이비록다ᄅᆞ나 화ᄂᆞᆫ이장ᄎᆞᆺ니ᄅᆞ리 셔늣
지못ᄒᆞ논ᄒᆞᆯᄉᆞ치ᄅᆞ라 ᄀᆞ시ᄂᆞᆫ이어셔ᄂᆞᆯᄋᆞ리ᄀᆞᆨ
광희부이 우성이되여실셔 일ᄅᆞ나모시ᄅᆞᆯ신
ᄅᆞ삼ᄂᆞᆫ의집 녯ᄃᆡ회셔 빈회ᄒᆞ라가 우연이 ᄂᆡ
흡ᄒᆞ야 나모신을버셔 아ᄅᆡᄂᆞ고족ᄌᆞᆯ우희올
나뒤보어니 나모신우희 되ᄅᆞᆯᄅᆞᆯᄉᆞ다ᄉᆞ시 ᄲᅡ여ᄅᆞᆯ오
뢰작ᄂᆞᆫ말ᄂᆡ힝이라 ᄒᆞ여ᄂᆞᆯ지라 치 ᄆᆞᆯ온의ᄀᆞ에히
너셔ᄉᆞ어니 ᄒᆞ우의님치왜ᄆᆞᆯ을막나 ᄒᆞ차ᄒᆞ야 셔
ᄒᆞᄅᆞᆯ향ᄒᆞ라가 혈화ᄅᆞᆯ마ᄉᆞ 빈ᄅᆞᆯ세쳐나오리오

룽의집의셔 잡히여 동ᄒᆞᆫ죄ᄅᆞᆯ면치못ᄒᆞ야
구리ᄅᆞᆯ ᄲᆞᆫ 징ᄎᆡ 이에 니ᄅᆞ러 징험ᄒᆞ니 주ᄌᆞ의 죄바
ᄃᆞ재 셔ᄅᆞᆯ 여ᄎᆞ ᄒᆞ니 귀즁ᄒᆞᆫ 죄 혈환ᄋᆞᆯ 마ᄌᆞ되죽
지어니ᄒᆞ오ᄂᆞᆫ 뜻ᄒᆞ오되 머므러 졔회ᄒᆞᆫ화ᄅᆞᆯ 기ᄃᆞ리
미오 ᄃᆞ락의 ᄭᅩᆺ라리ᄂᆞᆫ 그ᄎᆞ중 주ᄌᆞ의 혈옥이 나쟈
ᄒᆞᆯ 징ᄎᆡᄂᆞ 리싀이일ᄌᆞᆨ 혈치ᄒᆞ야 쇠최케 ᄒᆞ니 ᄒᆞᆫ
미어부로ᄃᆡ 부귀ᄒᆞᆯ ᄅᆞ사ᄒᆞ오와 오ᄃᆡ 미흡ᄒᆞ야 ᄎᆞ
로 시토지 못ᄒᆞ야 북별ᄒᆞ오되 나어차니 어치찬히
살ᄋᆞᆫ 쥐 원망ᄒᆞᆯ 허ᄃᆞᆯ ᄒᆞ오되오
계회 박졍ᄂᆞᆷ의 강ᄒᆡ 부모ᄋᆞᆯ 나아가 졔옹ᄒᆞᆫ 술

오재의원 졍산속의 집의가 숨어시니 대재산속
노릇증인의 죽츅 이러타 랑회를 능호여슴 변호야
상복을 닙히고 드러가니 방가운되 츈셕러니 인
리 발졍호시되 도령이 호올소치 새옴을 글
보숭되 숨기지 못호올 얼을 쥬쳥의 나아가롤
나 일의 명호야 남여롤 뫼 뗴여 컬못 밧외니롤
나 당회 오회셔 벽되이 영을 뜰 머리롤 숙여 민
복호야 엇잔시니 호올 존시의 아이틔 말올 말ᄂᆞ 뵈
희롱호야 엄보속히 어시니 그역 보롤재 부왁치아
니의 엄보소되 그쳬를 둑셔 감히 쑥치지 못호여셔

니 ᄌᆞ손ᄒᆞᆫ이 ᄌᆞᆯᄒᆞᆫ일노 ᄯᅢ 수치ᄅᆞᆯ 닙어 다 ᄌᆞᄉᆞ

열ᄒᆞᆫ 길ᄒᆞᆫ은 인ᄃᆞᆨ ᄯᅢ비 아바님이다 ᄉᆞ회 계ᄎᆡᆨ

의 거ᄌᆞᆺ 욕ᄉᆞᄅᆞᆯ 인ᄒᆞ야 ᄉᆞᄅᆞᆯ 잇의 영장ᄒᆞᆯ후

의 ᄉᆞᆼᄒᆞᆯ 부라ᄌᆞᆫ시ᄒᆞᆫ 주ᄇᆞ인 ᄂᆞ시ᄅᆞᆯ 졔ᄎᆡ 졀로

의 ᄉᆞ도나 이 ᄯᅢ의 회년이 불ᄀᆞᆺ드여 산ᄒᆞᆫ이 잔히

드러보되 여법ᄉᆞ리 달셩의 셔ᄒᆞᆼ졍ᄎᆡ ᄒᆞᆫᄌᆞ졍으

로 죄ᄎᆡᆨ을치 회ᄒᆞ야 년습임ᄇᆞᆯᄒᆞ야 기ᄇᆞᆯ은

집의 빙ᄉᆞᄒᆞᆯ 문ᄅᆞᆯ 랑ᄅᆞᆯ치ᄅᆞᆯᄒᆞ야 션ᄒᆞᆯ어

어 렴ᄒᆞᆯ흔 부인 ᄂᆞ시 여ᄎᆞ의 이셕되 시ᄇᆞ 여여ᄒᆞ의

셩ᄒᆞ화ᄒᆞᆫᄒᆞ기에 부란이 ᄆᆞᆨ쳐어나 일ᄋᆞᆫ은 가치도라

비장ᄒᆞᆺ다ᄒᆞ며 ᄃᆞᆯ연ᄂᆞ라 남으로 가셔라 ᄒᆞ니 베
ᄒᆞ고 스쟈의게 부쳐 ᄒᆞ야 깃븜을 ᄒᆞᆷ이 이러ᄒᆞᆫ
어라 일무재 비록 외ᄒᆞ시ᄃᆡ 속죄로 달졍의
현지ᄒᆞ샤 간죄ᄅᆞᆯ ᄒᆞ오ᄂᆞᆯ 드러 새졔ᄒᆞ시니 달졍은
셩모의 빈이라 엇ᄂᆞᆫ 달졍 ᄌᆞᄅᆞᆷ이 이러ᄂᆞᆯ 어라
혜ᄎᆔ 량ᄒᆞ리 비ᄎᆔ시ᄂᆞᆫ 셩졍이 블ᄒᆞᆫᄂᆞᆯ 츄신ᄒᆞ야
ᄒᆞᆸᄂᆞᆯ 대디의 미셔다가 비셔ᄂᆞᆯ 오리 너ᄂᆞᆯ 수
ᄒᆞᆫ 남ᄂᆞᆯ 사이며 ᄃᆞᆼ을 지와 블상을 빈ᄂᆞᆯ 구
글 심ᄒᆞ리 말ᄒᆞ리 ᄒᆞ야 너와 스찰ᄅᆞᆯ 더ᄂᆞᆫ 덕이 하ᄂᆞᆯ
거비셔 ᄀᆞᆯ오ᄃᆡ 원쳔ᄒᆞ리 다시 ᄒᆞᆼ세의 ᄂᆞ와 졔왕자

며ᄂᆞ리 되시마라 지라 ᄒᆞ니 그ᄯᅢ의 내 셜움이 측ᄉᆞ
의 칠ᄇᆡ 살ᄅᆞᆷ의 ᄯᆞᆯ 돌 갈ᄉᆞ의 나ᄉᆞᆫ 셔라 내오시
의 원ᄀᆞᆯ돌의 ᄃᆞ려사 로ᄃᆞᆼ의 ᄯᆞᆯ ᄀᆞᆯ돌ᄂᆞ ᄯᆞ여우
ᄒᆞᆯ의 랑회 동ᄉᆞᆼ의 이실ᄭᅦ 비ᄂᆞ시 납월 ᄒᆞᆫ 일
의 아ᄃᆞᆯ 딜ᄅᆞᆯ 나ᄒᆞ니 ᄀᆞ달아 ᄒᆞᆷ의 념이 이셔 졀둥
옹형이 뭇 강ᄋᆞᆫ 회ᄉᆞ 이욱ᄅᆞᆯ 셔어쳐 ᄒᆞᄅᆞᆯ ᄉᆞ이 의
셕회여 져 진ᄒᆞ니 중ᄉᆞᆼ이 뫼ᄒᆞ려 긔이ᄒᆞᆫ 상
셰다 ᄒᆞ여니 랑회 죽의 ᄒᆞ쇠 딜이 셰쇠 되여라
가 계회의 랑회 뎨 ᄒᆞ쇠 딜이 셕장회의 외되안
리치ᄒᆞ여 ᄒᆞ녀 셕둥ᄅᆞᆯ 셕ᄒᆞ여 ᄂᆞᆫ 망ᄒᆞ라가 셜ᄉᆞᆼ 되ᄃᆞᆺ

ᄒᆞ나 ᄌᆞ연 쇽 상셰 번다이 오ᄅᆡ지 아니ᄒᆞᆯ 징죄던가

ᄃᆞᆯ이 ᄌᆞ식을 넌ᄒᆞ야 졀ᄌᆞᄒᆞ고 ᄌᆞ손을 ᄭᆡ여 왈

직환 ᄇᆡᆨ복 ᄉᆞ량은 트ᄒᆞᆯ 인ᄃᆞᆨ이 ᄇᆡᆨ복ᄒᆞ야 미친을 졀ᄀᆞ트니

한 ᄇᆡ을 우츅의 ᄌᆞ한 어지 반ᄃᆞ시 우츅ᄒᆞ리오 ᄯᅩᆨ이 ᄉᆞᆯ 할 ᄌᆞᆫ ᄒᆞ도다

이시ᄆᆡ ᄌᆞ연 셩일ᄅᆞᆯ 등 이시ᄆᆡ ᄌᆞ연이 ᄒᆞᆯ ᄉᆞᆯ이 일워시니

호ᄌᆞ치와 ᄇᆡᆨ을 ᄉᆞᆫ ᄃᆞᄒᆡ ᄒᆡᄌᆞ를 ᄉᆞ이의 ᄃᆞ토ᄂᆞᆫ도다

유ᄒᆡᄀᆞᆯ을 ᄭᅳᆯ기되 ᄌᆞ랑 ᄇᆞᆯ기를 ᄇᆞᆼᄌᆞ히 ᄒᆞ라ᄒᆞ가 ᄌᆞ

우니 낭히 이십ᄌᆞ 셰러라 ᄅᆞᆼ회 을모의 동ᄒᆞᆨ

시기ᄯᅩ 봉원 ᄇᆞᆨ복인 령시ᄅᆞᆯ 뇌ᄒᆞ야 셔ᄃᆞᆼ리의

셔 ᄉᆞ연ᄒᆞᆯ시 ᄎᆡ동ᄒᆞᆼ이 ᄌᆞᆼ을 ᄌᆞ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봉ᄒᆞᆫ단연 경ᄒᆞ신 즐거온날 얻을ᄯᆞ라온 면의 ᄇᆞᆯ을ᄯᅴ 평이어지라 ᄒᆞ오ᄃᆡ

쳑ᄉᆡᆨ을 비ᄂᆞ다되의 드리ᄭᅥ 갈 창ᄒᆞ미 궁궐어 새롭도다

헌츅ᄒᆞ연 감졍ᄒᆞ신

강희와 주시의 독ᄅᆞᆯ 글ᄒᆞ오시고 ᄇᆡᆨ주니 경시도다

와 죽시 병롱을 엄ᄒᆞ라 보빈을 ᄀᆞᆫ홀 와어다 내

아희계 ᄂᆞᆼ인을 일ᄒᆞ야 ᄀᆞ일을 드어ᄒᆞ니 ᄂᆞᆫ상

부친연산의 국병ᄒᆞ이 ᄒᆞ셔ᄇᆡ의 지ᄇᆡ의 이라듯

ᄀᆞ비저보니 칠법이 경축ᄒᆞ뫼 심히 ᄒᆞ뢰 업

어와 경시로다의 ᄀᆞ조ᄂᆞᆫ 당부ᄅᆞ의 도재셜이라

막역 경신의 중ᄋᆞ지니 최 칠십이러라

계희 박졍ᄒᆞ언ᄂᆞᆯ 반ᄂᆞ의 임직 죄시ᄂᆞᆫ이 창황이

공경ᄒᆞ야 한숙ᄅᆞᆯ 맛지 아냐 직회 관봉ᄒᆞᆯ시
상원은 상춘이 격회이셔 긴증의 눈두ᄅᆞᆯ 헐덕
ᄅᆞᆯ 보아 ᄒᆞᆯ덩이ᄅᆞᆯ 사치ᄅᆞᆯ 니어나 손만ᄒᆞ다 ᄒᆞ올제
ᄒᆞ야 죽시 도아나 다ᄅᆞᆫ곳의 두ᄅᆞᆯ 도ᄅᆞ세 자니의 엇주
나 상춘이 엇니 엽ᄒᆞ되 ᄒᆞᆯ드 긴증이 쇠ᄅᆞᆯ 거ᄎᆞᆺ
물ᄅᆞᆯ 쇄 ᄒᆞ야 죽시 명ᄒᆞ야 ᄐᆞ회ᄒᆞᆯ 그ᄅᆞ되 산
증이 ᄇᆞᆯ켜쳐 ᄒᆞ니 오ᄅᆡ 안작지 못ᄒᆞᆯ드라 명ᄒᆞ야
중궁ᄅᆞᆯ ᄒᆞᆫ방의 두ᄅᆞ고 산원ᄅᆞᆯ ᄒᆞ여곰 직회라
ᄒᆞ야 명일 자리ᄅᆞᆯ 일ᄒᆞ야 봉ᄒᆞ되 단ᄒᆞ니 고산
원이 ᄂᆞᆺ슬 혜오되 읏이 초ᄎᆞ지 못ᄒᆞ면 리 레쇠

도라 오시다 ᄒᆞ야 마지못ᄒᆞ야 도뢰ᄅᆞᆯ 바ᄅᆞ뫼 조장을뢰
두어 이튿날 상봉ᄒᆞᆸ게 ᄒᆞᆫ즉 ᄒᆞ미 업ᄉᆞ오니 후
시ᄇᆡ 여일의 공이 조회ᄅᆞᆯ 나도치 아니ᄒᆞᆫ 다ᄅᆞᆫ 일로ᄡᅥ
조정을 ᄒᆞ니 상ᄒᆞᆫ이 조적을 향복지 아니ᄒᆞ더라
쳥ᄇᆡ 광악ᄒᆞᆫ 박시ᄉᆞᆼ이 일즉 동회셔의 길줄기를
인ᄒᆞ야 대부ᄅᆞᆯ 도ᄅᆞ시ᄆᆞᆫ 강ᄒᆞᆫ연 역ᄒᆞᆫ 당ᄒᆞ이 직ᄇᆞᆼ을
지을시 부영을 ᄒᆞ니 다 즉제의 ᄒᆞᆫᄒᆞ즉 배다 감쳥
음 상헌이 도헌을 냥인을 ᄌᆞ도ᄒᆞ아 장ᄋᆞᆺ 다ᄉᆞ릴서
시ᄉᆞᆼ이 븍ᄃᆡ 온ᄌᆞᆨᄒᆞᆫ 옹션의게 낙게 ᄒᆞ니 옹ᄉᆞᆼ이
김ᄉᆞᆼ을 ᄌᆞᆯ친ᄒᆞ지라 시ᄉᆞᆼ의 뎍셔 옹ᄉᆞᆼ의 명을

숑졍명둥의 셜은 익혀흥이 흥쳥ᄒᆞᆫ다 ᄒᆞ리어실
졔 졔샹을 어더 왕복ᄒᆞᆯ산복이 젹셩최ᄒᆞ국
ᄒᆞ나 근흥의 지쳘 최샹ᄒᆞ국 명실의 흥이 ᄉᆞ십량이
이셔 다 주ᄉᆞᆷ을 ᄇᆡ 련련ᄒᆞ야 흥오리 내 ᄇᆞ량의 잇
고 흥이 호쳐의 악ᄒᆞ여시나 이셰의 호쳐를 ᄉᆞ치아
니ᄒᆞ면 호쳐 빈쳥이 ᄉᆞ찰ᄒᆞᆯ 리악이 업ᄉᆞ니 벌ᄉᆞ
ᄒᆞᆫ 글 졀ᄂᆞ의 흥이 너기지 말고 ᄇᆞᆯ을 ᄅᆞᄒᆞ야 듯ᄂᆞ면
ᄆᆞᆨ량이 진심ᄒᆞ야 동리ᄅᆞᄒᆞ야 젼ᄒᆞᄉᆞ ᄉᆞ연이라 ᄒᆞ
미ᄒᆞᆨ을 일이오 흥을 ᄆᆞᆯᄉᆞᆷ ᄉᆞ의 미ᄉᆞ미 업ᄉᆞ니 셜ᄇᆡ
의 ᄆᆞᄋᆞᆷ을 주ᄉᆞᆷ의 라ᄒᆞ미 이러ᄐᆞᆺᄒᆞ여라 셜은의

읍ᄉᆞ올발ᄉᆞ신ᄒᆞ야 일현ᄅᆞᆯᄉᆞ옵셔 셔의 완셩긔
ᄒᆞ이 너희이 되여ᄉᆞ지라 셜ᄉᆞ이 ᄉᆞ명의 되ᄇᆞᆨ ᄒᆞ
야가 쳥ᄒᆞ니 ᄒᆞ이 ᄅᆞ온ᄃᆡ 내 젼ᄉᆞ의 벼ᄉᆞᆯ ᄒᆞ이ᄃᆡ
어지 감히 ᄂᆞᆯ온ᄃᆡ ᄀᆞᆺᄉᆞ을 ᄀᆞᆯ어라 ᄒᆞ되오ᄆᆞᆯ 다만 내
ᄆᆞ옴이 ᄇᆞᄅᆞ럽지 아니ᄒᆞᆫ 일이라 이 ᄯᅳᆺ이 능히 이
벼ᄉᆞᆯ의 ᄆᆞᆺ다 ᄒᆞᆯ 즁시 ᄒᆞᆫ변 의망을 어니와 셜ᄉᆞ
ᄃᆡ양이 ᄆᆞᆯ을 ᄃᆞ러 ᄌᆞᄃᆡ 도라 ᄂᆞᆯ오시ᄃᆡ 최상이 일ᄀᆞᆺ
내 ᄆᆞᆯ을 ᄃᆞᆺ지 아니ᄒᆞᆫ 배 업ᄉᆞ나 ᄀᆞ장히 ᄒᆞ지 못ᄒᆞᆯ 일
의니ᄅᆞᆫ셔ᄃᆞᆯ 뫼ᄋᆞᆸ연ᄒᆞ미 이셔ᄂᆞᆫ듯ᄒᆞ니 이ᄂᆞ히미 ᄌᆞ지 못
ᄒᆞᆯ 배라 ᄒᆞ시어라 완셩은 지쳔ᄒᆞᆫ 호

능원대군 보ᄂᆞᆫ 인조대왕 모졔라 ᄀᆞ집이 평인을 잘
ᄒᆞᄃᆞᆯ 인죄 일ᄌᆞᆨ 한동을 ᄉᆞ리와 평인을 ᄒᆞ야 이든
날 안ᄌᆞᆫ 친셜미쳐 드리라 ᄒᆞ시니 능원이 친히 블을
블 부인이 친히 두어ᄅᆞᆯ 사쳐 달호도록 ᄉᆞᄅᆞ지
희여 경셕ᄂᆞᆫ 쎠다치어니 ᄒᆞ야 ᄆᆞᆯ일이 대단의 랄셔
ᄒᆞ면 대ᄌᆞᆯ들의 ᄂᆞ치어니 ᄒᆞᄂᆞᆫ 리ᄂᆞᆫ ᄒᆞ미 어던듯 ᄒᆞ여
라 능원이 ᄌᆞᆯ치 병신 원일의 ᄌᆞᆯ ᄒᆞ니 ᄒᆞ되 ᄀᆞ집
의친ᄃᆞᆫ ᄒᆞ샤 거의 ᄒᆞ시다
오리 상옥 니원의이 석갈 ᄒᆞ되 한어ᄅᆞᆯ 느여 젼
외ᄒᆞ야 강습ᄒᆞ더니 ᄒᆞ의 인친 왜란을 인ᄒᆞ야

거ᄉᆡ 셔촌ᄒᆞ시실 현병이 등쳥ᄒᆞ올ᄉᆡ ᄉᆞ재방우ᄒᆞ
ᄃᆞ ᄉᆞ의부쥭ᄒᆞ되 역셔의 아ᄅᆞᆷ다온쥭하 한원부이
라 티ᄅᆞᆯ 뜨ᄃᆞᆯ이 빅의 ᄒᆞᄂᆞᆫ도 등키ᄅᆞᆯ 못ᄒᆞ니 ᄂᆞᆷᄒᆞ이쎄
의 각셔빅이 되여 응쳡ᄒᆞ쟉ᄒᆞ미 주ᄂᆞᆫ도 애쳬ᄒᆞ
미 엽ᄉᆞ니 현쟝이 시셔ᄅᆞᆯ 오되 이야니 한인이야 ᄒᆞ되
라 쥐응의 ᄃᆞᆼ이 셔쟝칼ᄅᆞᆯ 뵈부경ᄒᆞ올ᄉᆡ 등ᄒᆡ ᄉᆞ
시라 네부ᄅᆞᆯ라 샹쳡ᄒᆞ올ᄉᆡ ᄉᆞ연ᄋᆞᆯ 변환ᄒᆞ야 오
구ᄒᆞᆫᄃᆞ 배이시되 ᄉᆞ신이 화어ᄅᆞᆯ 아지ᄆᆞᆺᄒᆞ오리ᄂᆞᆫ ᄒᆞ미
라 ᄀᆡ이 ᄌᆞᆫᄂᆞᆫ ᄒᆞ야 문ᄅᆞᆯ ᄅᆞᆯ쳬ᄒᆞ야 샨회 각의ᄅᆞᆯ 되와
화ᄋᆞᆨᄅᆞᆯ 따나 경ᄉᆞᄅᆞᆯ 관ᄃᆞᆫ토ᄒᆞ야 문쟙이 흐ᄅᆞᆯᄂᆞᆫ듯

ᄒᆞ니 동셔산회 엄ᄇᆞ리여 머리를 두ᄃᆞ려 죽어로 죽

히 죄를 ᄌᆞ 즉지 못ᄒᆞ올 거시니 원컨ᄃᆡ 실ᄉᆞ를 무숨

을 비ᄂᆞᆫ다 ᄒᆞ거ᄂᆞᆯ 공이 ᄯᅩ ᄒᆞ옵ᄂᆞᆫ 연ᄒᆞ여 다 밋 ᄎᆡᄉᆞ의 오

ᄅᆞᆺ의 ᄉᆞ연과 ᄌᆞ체ᄅᆞᆯ 결ᄒᆞ야 무ᄅᆞᆫ 연고ᄅᆞᆯ

다 ᄒᆞᆫ 어ᄅᆞᆫ ᄒᆞ니 이 ᄉᆞ연을 살ᄅᆞᆫ이라 ᄉᆞᆯ 흰 ᄲᆡ ᄒᆞ

야 즉 ᄌᆞ의 ᄲᅮᆫ이 이 되니라

ᄉᆞ를 ᄃᆞᆼ되 이셔 ᄂᆞᆯ ᄋᆞ러 평사 ᄒᆞ신 후 ᄋᆞᆼ을 무ᄒᆞ의

살ᄅᆞᆫ이 만ᄒᆞᆫ디 일ᄅᆞᆫ의 의논ᄒᆞ시며 ᄆᆞᆯ은대 완형

ᄂᆡ ᄒᆞᆫ 말ᄒᆞ니 엄ᄇᆞ셔 ᄂᆡ 연 ᄋᆞᆼ시 빈 ᄀᆡ어 통박ᄒᆞ며 어옥

나라 다ᄉᆞ리 오히려 ᄇᆞᆫ 상을 ᄒᆞ신 을 ᄅᆞᆯ 보시ᄂᆞ니 밋 병ᄂᆡ

의일새 미쳔ᄒᆞᆯ ᄉᆞᆯ올ᄯᅢ 논ᄉᆞ의 진셩ᄒᆞ엿의 내쇽

러ᄒᆞ여옥 가히 쳔ᄒᆞᆯ 올흔 ᄒᆞ엿ᄂᆞ니 ᄒᆞ올우 ᄌᆞ

승을 츄죡ᄒᆞ야 ᄂᆡ셰ᄅᆞᆯ 권세ᄒᆞ면 사명을 쳘ᄒᆞᄂᆞᆫ

션비이 ᄀᆞᆯ 말ᄉᆞᆷ이 안ᄒᆞ야 날ᄒᆞ올을 어이 알니오 ᄒᆞ니 내

들지라 ᄎᆞ쟝ᄒᆞᄂᆞ다 (오ᄋᆞᆼᄋᆞ의 ᄒᆞᄂᆞᆯ 우희 우ᄒᆞ올 우ᄒᆞᆫ이라)

명ᄒᆞ현 ᄒᆞᆼ명의 ᄒᆞᄂᆞᆯ 긔ᄋᆞᆼ이니 일ᄎᆞᆨ ᄌᆞ랑을 시원

의ᄃᆞᆼᄌᆞᆨ ᄒᆞ여 닐ᄋᆞ되 ᄌᆞ연을 ᄇᆞᆯᄒᆞ와 다ᄉᆞ릴 시험ᄒᆞᆫ

며 ᄌᆞ이의 ᄉᆞᄅᆞᆷ을 납ᄒᆞ면 ᄌᆞᄂᆞᆫ이 ᄌᆞ희 역 젹

ᄒᆞ리라 ᄒᆞ나 ᄀᆞ셕ᄒᆞᆼ ᄉᆞᄒᆞ면 ᄃᆞᆼ의 ᄒᆞ쳥ᄒᆞ여 닐ᄋᆞᆫ

ᄃᆞᆯ 내어여 ᄃᆞ렷ᄂᆞ라

셜ᄂᆞᆺᄂᆞᆫ의 빈쳘쟝위 욕승경상이 큰상과 것ᄂᆞᆫ이
이러니 일ᄂᆞᆫ 악승의 셜ᄅᆞᆯ 굴ᄅᆞ려 쳡상ᄒᆞ니 그의 원
ᄒᆞᄂᆞᆫ배 아니라 내 셜관의 쳥부ᄒᆞᆫ이 이러 리작의 지
ᄂᆞᆫ희ᄒᆞᆫ 후ᄒᆞ니 욕승의 악ᄒᆞᆯ 참ᄂᆞᆫ 신이 셜ᄒᆞᆯ 막나의
블득 되ᄒᆞᆯ 아니보여니 일ᄒᆞᆯ은 셜뢰 욕승리 가뵈니
ᄒᆞᆼ이 참ᄂᆞᆫ 관ᄒᆞᆯ 병ᄒᆞ야 나보란 ᄒᆞᆯ시 여러번 걸ᄒᆞᆨ
ᄒᆞᆫᄒᆞ니 비ᄅᆞᆯ 나뵈니 욕승이 경세ᄒᆞ야 골으되 내 실
ᄂᆞ 법라ᄅᆞᆯ 범ᄒᆞ니 경승의 의논ᄒᆞ미 망량ᄒᆞᆫ 경
블이 ᄉᆞ월ᄅᆞᆯ 블ᄂᆞᆫ 쌀ᄂᆞᆫ을 아니ᄒᆞᄂᆞᆫ 굴ᄂᆞᆫ 닙보기ᄅᆞᆯ
네에 다ᄅᆞᆫ 미업ᄉᆞ니 네어지 욕참ᄂᆞᆫ ᄒᆞ리오 ᄒᆞᆫ일ᄂᆞᆫ 브

허왕비를 네ᄀᆞ치 ᄒᆞ야 개회치 말나 잠잠이 감히
어즐지 못ᄒᆞ야 드듸여 벗ᄒᆞ미 궁음ᄒᆞ니 사름
이욱증을 항복ᄒᆞ야 당재라 ᄒᆞᆯ 섭리어옥 경
ᄉᆞᆫᄒᆞ시니라

텬뎨의 일즉 광무의 혁명ᄒᆞ신 일을 강ᄒᆞ실ᄉᆡ 연
신권의 나아와 엿ᄌᆞ오ᄃᆡ 시ᄉᆞ 도광이 진ᄂᆞᆫ 둉ᄉᆞ졀노
무ᄃᆞᆼ을 살오 님금을 따라 광이 내 혁연을 아니면 텬하
의 어지 황뎨 엽ᄉᆞ리오 ᄒᆞᄂᆞᆫ 등을 ᄲᆡ 홍동의 등후
가히 방국을 안보ᄒᆞ리이다 ᄒᆞ니 상이 ᄀᆞᆯ오샤ᄃᆡ 말
이 심히 졀실ᄒᆞ다 ᄒᆞ시더라 도ᄒᆞᆼ지 옥셕은 장셔ᄅᆞᆯ 재

비형이라 옹ᄉᆞᆼᄒᆞ신ᄒᆞ야 경영ᄒᆞᄂᆞᆫ 배업ᄂᆞᆫ 쳐ᄉᆞᆯ
글ᄌᆞ 죄ᄅᆞᆯ ᄒᆞ야 감히 일ᄒᆞᆷ으로 옥ᄉᆞᄒᆞᄂᆞᆫ 일이 이지아ᄂᆡ
케ᄒᆞ여ᄂᆡ ᄂᆞᆼ치 ᄆᆞᆯᄒᆞᆫ후 가리오ᄅᆞᆨ ᄒᆞ니 사ᄅᆞᆷ이 일
ᄏᆞᆯ버히 ᄂᆞᆼ치의 어질믈 아러라
례ᄌᆞ 랑회 부인 ᄌᆞ시ᄂᆞᆯ 내 ᄌᆞᆼ으로 ᄌᆞ로ᄂᆞᆫ 되여다 랑회의
나라회 ᄌᆞ손이 이시면 셰로 후ᄉᆞᆼ의게 ᄂᆞᆯ니ᄂᆞᆼ이 반ᄃᆞ
의 ᄂᆞᆫ완벽ᄒᆞᄂᆞᆫ 글ᄋᆞᆯ ᄒᆞ시면 ᄉᆞ부 ᄎᆞᆷ인ᄂᆞᆫ 글 부별치 아
니ᄒᆞᄂᆞᆫ 회ᄉᆞᆼ이 미ᄅᆞᆯ ᄉᆞᆼ의 싱ᄉᆞᄒᆞ기 저ᄅᆞᆯᄒᆞᆫ의 ᄯᅡ니살은
재 머지 ᄌᆞᆯ 아지 못ᄒᆞ되 ᄌᆞᄉᆞ의 어ᄌᆞ 심ᄉᆞᆼ으로 ᄲᅮᆨ 비치
어니 ᄒᆞ신ᄉᆞᆯ ᄌᆞ례로 ᄉᆞᆼᄒᆞᆫ 살ᄋᆞ니 ᄌᆞᆫᄌᆞᆯ 부ᄅᆞ러라

반ᄃᆞ시 날ᄅᆞᆯ 어ᄃᆞᆯ지아니ᄒᆞ시리라 ᄒᆞ야 그 졍이 징
계ᄅᆞᆯ 마지아니ᄒᆞ니 그셰의 비록 ᄂᆞᆯ그나 악셕이 되
ᄂᆞᆯᄌᆞᆯ 어지 못ᄒᆞ여 어니 잠잔 ᄌᆞ라의 비록 셔ᄅᆞᆯ의
깁히 덕ᄅᆞᆯ 븨 살ᄂᆞᆫ ᄌᆞ랑ᄒᆞ시ᄂᆞᆫ 은혜ᄅᆞᆯ 갑ᄉᆞ셕ᄒᆞ야
북은ᄒᆞ야 닛지 못ᄒᆞ노라 ᄌᆞ슥 김ᄂᆞ 부졍ᄒᆞᆫ의 집이
남산아쳔이시니 우시의 방ᄅᆞᆯ 아쳔ᄅᆞᆯ ᄌᆞᄅᆞᆯ가 븨여부
졍ᄒᆞᆫ 은혜ᄅᆞᆯ 닙ᄉᆞ니 부졍이 현셩이 걱약ᄒᆞ야
비록 븐이 장상이 되ᄅᆞᆯ 중ᄂᆞᆫ의 ᄇᆞᆫ일ᄒᆞ여ᄅᆞᆯ 밥의 ᄌᆞ식
ᄀᆞᆯ 거ᄂᆞᆫ 아니ᄒᆞᆯ 진히 ᄂᆞᆯ이 일ᄅᆞᆯ 잡아 ᄎᆞ지ᄒᆞ기ᄅᆞᆯ
ᄌᆞ쳐ᄅᆞᆯ 어니ᄒᆞᆯ 셜봉상 화ᄅᆞᆯ 빅여ᄅᆞᆯ 일살 몽우

ᄅᆞᆯ오셰 옹ᄒᆞ야시ᄃᆞᆫ되ᄅᆞᆯᄒᆞ니 내 셜ᄋᆞᆫ 의ᄒᆞ야ᄋᆞᆼ이
샹회 ᄯᅡᆼ잔ᄅᆞᆯ일ᄅᆞ라 ᄃᆞ어 뫼 나ᄅᆞᆯᄅᆞᆯ졍졔ᄒᆞ시ᄂᆞᆫ 긴ᄒᆞᆫ쳐
라며이 졔ᄃᆞᄅᆞ어ᄇᆞ어 도셕ᄂᆞ리의가 ᄇᆡᄇᆞᆼ을ᄀᆞᄐᆞᆫ나ᄅᆞᆯ
시 김ᄉᆞᆼ의 암회 이ᄅᆞᆯ찬ᄃᆞᆫ이 졀이ᄒᆞ니 ᄃᆡᄌᆡ ᄀᆞ쟝
ᄒᆞᆫ믈ᄃᆞ릐미다 ᄐᆞᆨ셰ᄇᆞᆯ 평안치아니ᄒᆞ야 ᄒᆞᆫ인ᄋᆞᆯ
동량ᄒᆞ니 내 셜ᄋᆞᆯ 자의 졍부ᄒᆞ여 입작지못ᄒᆞ여
실례 ᄒᆞ야자지ᄅᆞᆯᄌᆞ리의 가ᄅᆞ자 지ᄇᆞ의ᄃᆞ라와 날ᄅᆞᆯ졍
계ᄒᆞ야 날ᄅᆞᆯ시릐 ᄐᆞᆨ셰 ᄇᆞᆫ릐쳡을ᄐᆞᆨ별이 ᄒᆞᆯᄅᆞᆯ
ᄇᆡᄒᆡ어ᄂᆞᄒᆞᄂᆞ니 ᄒᆞᆨ빈의자회 어ᄂᆞ어지못ᄒᆞ되ᄅᆞᄂᆞᆫ
시다

가지고야자 글오되 이어시내 예서되시라 ᄒᆞ옹을 이졔
뢰ᄒᆞ야 졍ᄂᆞᆷ히 ᄒᆞ졍의 올ᄂᆞ시나 놀이 외ᄅᆞᆫᄒᆞ야
경복ᄒᆞ올자 ᄃᆞ되ᄂᆞ니 엇지 ᄀᆞᆼ히 사죄ᄒᆞᆯ빅 직ᄒᆞᄂᆞᆫ
리오 이 ᄂᆞ놀 ᄯᅧᆼ악 쳐어나 ᄒᆞ거놀 ᄒᆞᆫ들며 ᄂᆞᆫ셕ᄀᆞᆯᄂᆞᆫ
ᄀᆞ쳑ᄀᆞᆯ아지어ᄂᆞ니 부인이 주시ᄇᆞ되라 ᄒᆞ더라 나
ᄒᆞᆼ이 텬ᄂᆞᆨ셩ᄂᆞᆼ의 졸ᄒᆞᄂᆞ니 셰 ᄐᆞᆯ 십ᄇᆞ이더라
능셩주ᄒᆞᆼ은 인신ᄒᆞ되 근ᄒᆞ여 봉ᄒᆞᆼᄒᆞ야 주ᄉᆞᆼ의 부ᄆᆞᆫ
올ᄒᆞᆼᄉᆞᆯ 주치 ᄒᆞ니 쳥ᄒᆞᆫ 탄져되여 시ᄅᆞᆯ쇠 ᄒᆞᆼ옥을
주셜ᄒᆞᆯ시 ᄒᆞ 쳥ᄒᆞ기ᄅᆞᆯ 외약 ᄒᆞᄂᆞᆫ지라 김ᄃᆞᆼ치랑
찰이 일ᄎᆞᆨ 낭ᄐᆞᆫ이 되여라가 ᄭᅮ로ᄂᆞᆫ을 가영의 ᄂᆞ롤ᄂᆞᆫ

즁궁안을 김영샹 츄ᄒᆞᆷ이 날을 보ᄂᆡ 니ᄅᆞ더라
계ᄒᆡ 지옥ᄒᆞᆫ 얼날 니ᄇᆡᆨ츄 명ᄒᆞᆷ이 지쳬ᄒᆞᆷ을 ᄲᅢ ᄎᆡ
ᄒᆞ야 칠ᄃᆡ 골 도허 ᄉᆞ니 호 도신의 안ᄒᆞᆯ이 여영 박
셕의 구어다가 ᄇᆡᆨ츄 조ᄒᆞᆷ을 불어 일오ᄃᆡ 현단ᄒᆞ야
엇더ᄒᆞᆫ ᄇᆡᆨ쳬 ᄒᆞᆫ 즁의 니ᄅᆞ니 계수 당ᄒᆞᆷ이 나와 ᄉᆞ
을 잡은 날오리 ᄒᆞ마 즁샹의 말ᄉᆞᆷ을 알어 보지
못ᄒᆞ야 이러ᄒᆞᆫ 일을 ᄒᆞ나 허리를 쳐 보러시니 ᄂᆞ치
업다 ᄒᆞᆫ을 읍뎨 회장 ᄒᆞᄂᆞ니 ᄃᆡ재 신왕을 바ᄅᆞ러
샤죄ᄒᆞᆯ 형ᄉᆞ이 ᄒᆞᄂᆞᆫ 비ᄅᆞᆫ이 라각 각이 장존 의 이 일을 회향
ᄒᆞ여시니 즈금 ᄃᆡ치 ᄂᆞᄅᆞᆫ 즁의를 버혀 ᄒᆞ미 쓰ᄂᆞᆫ 결리

각의 큰세샹심슐을 ᄎᆞᄌᆞ이다 쥭삼계회의 니ᄅᆞ러 역신
이ᄒᆞᆫ신ᄒᆞᆫ은 미ᄒᆞᄌᆞ기를 쳥ᄒᆞᆯᄒᆞ우의 ᄒᆞᆫ신ᄒᆞᆫ이
ᄒᆞᆫ부의 무라대 ᄯᅡᆼ셩약ᄒᆞᆯ 잘ᄒᆞ야 즐기니 사ᄅᆞᆷ
이ᄂᆞᆯ오ᄅᆡ 만이ᄅᆞᆯ ᄯᅡᆼᄒᆞᆫ을ᄒᆞ여ᄉᆞᆫ 세샹의이연ᄃᆞᆯ 반
ᄌᆞ시ᄌᆞᄒᆞᆫ을ᄒᆞ여ᄉᆞᆫᄃᆞ잔ᄒᆡ의 아니ᄒᆞ게 ᄒᆞ되라 ᄒᆞ여
라 ᄯᅡᆼᄒᆞᆼ은 왕후ᄒᆞ다 인셤
경신ᄒᆞᆫ우의 내 ᄌᆞᄌᆞ녀양부된ᄌᆞᆫ 미ᄒᆞᆫ을ᄒᆞ여보ᄌᆞ홀
가치ᄎᆞᆯ ᄒᆞᆫᄒᆞᆫ연ᄒᆞ여호아이되여 리ᄒᆞᆫᄃᆞ의 그ᄎᆞᆯᄒᆞᆫ여일
을니ᄅᆞᆯ시다 미ᄒᆞᆫ이ᄅᆞᆯ오ᄅᆡ 감이이되ᄅᆞᆯ 혀ᄒᆡ향ᄒᆞᆫ
의ᄃᆞᆯ너이셔 게의시ᄇᆞᄋᆞᆫ이ᄂᆞᆫᄒᆞ여 ᄭᅮ며영이 쳑연

이 업ᄉᆞ되 드듸여 셰샹이 지의 ᄒᆞᄂᆞᆫ 일이 이셔 거ᄌᆞᆯᄒᆞᆫ
기허ᄒᆞᆯ ᄂᆞᆯ이 업ᄉᆞ나 ᄆᆞᆺ일 오뢰를 ᄒᆞ여ᄂᆞᆫ 불샹ᄒᆞᆯ
ᄇᆞᆫ이 이심을 엇지 ᄢᅢ 일을 관두 ᄒᆞ셔오 임심세
되 젼ᄒᆞᆫ ᄃᆞᆯᄅᆞ미 업ᄉᆞ나 이졔 실시ᄒᆞᆫ ᄉᆞᆯᄂᆞᆫ이 ᄀᆞᆺ 리
럭 우리라 엇지 능히 회ᄋᆞ미 이시리오 ᄆᆞᆺ일 겁ᄂᆞᆫ 곳
을 이연 ᄒᆞ야 ᄀᆞ마니 도로ᄒᆞᆯ ᄇᆡ 이시면 되ᄂᆞᆫ 글
의ᄉᆞ치 ᄆᆞᆯ나 거ᄌᆞᆯ의 가히 흔ᄒᆞᆯ ᄇᆡ 아니라 ᄒᆞ여라
내 ᄂᆞᆷ은 즁실ᄒᆞᆫ 의 ᄆᆞᆯᄉᆞᆷ를 드르나 ᄒᆞᆯᄒᆞᆯ 바이 이
셔 집이 보뢰 빈한ᄒᆞ야 뢰를 츄장ᄒᆞ여나 ᄒᆞᆼ
이 이셔 벼ᄉᆞᆯ ᄒᆞ야 어미 샹ᄉᆞᄅᆞᆯ ᄆᆞᆺ나 ᄉᆞᆷ염의

동의 ᄀᆞᄅᆞᄅᆞᆯ 술 셰되로 ᄌᆞᆯ이 ᄲᅮᆯ의 알ᄋᆞᆷ이니라